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팩스:02-735-2344

#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노태형/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월 25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욕심없음이 최상의 쾌락이고 만족이 최상의 부귀다.
〈천청문경〉

## 법회 안내

청수사 (02)816-129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강좌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 5시
자성신공불사 목 오후6시

인정사 (02)292-2439
인등기도법회 10일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주한마음선원 273-6945
정기법회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목 오전10시30분
법형제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법회 목 오후7시30분
학생법회 토 오후4시30분
심근회법회 첫째 화 오후2시
심일회법회 매월 둘째 화 오전10시30분
심원회법회 매월 셋째 화 오전10시30분
심선회법회 매월 넷째 화 오전10시30분

천안 천불암 (0417)564-3223
큰스님초청법회 매월 초 3일
초하루법회 매월 1일 오전11시
인등기도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 오전11시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 오전11시

김천 직지사(0547)436-3174
거사림법회 셋째 일 오후2시
관음회법회 19일 오전10시30분
지장회법회 18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전6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안산 영각사 (0345)498-7700
일요정기법회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안산 운전기사회법회 매월 둘째 화 오전11시
거사림신행법회 일요법회 및 사찰순례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1



◇ 밝은 웃음으로 손 맞잡은 조계·태고 두 종단의 총무원장들. 지난 17일 40년만에 이루진 두 종단 수장들의 악수는 분규종식, 불교공동체형성의 첫 신호탄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태고종

# 40년 묵은 감정 "해빙"

## '89년 합의안 근거로 해결책 모색

## 17일 6년만에 회동 … 재산처분이 걸림돌

1954년 정화이후 조계종과 태고종의 40년 묵은 앙금으로 남아있던 분규사찰문제가 새해들어 해결의 기미를 보이면서 그 귀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의 「조계·태고 분규사찰 실무협의회」와 태고종의 「태고·조계 사찰분규 종식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림각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화이후 40여년을 끌어온 분규사찰 문제를 89년 양측 실무대표단에서 합의된 안을 근거로 하여 풀어가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지난 89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조계·태고종간의 분규사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태고종 서봉 총무원장이 동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 종단은 같은 종조·종지·교리를 신봉하는 일불제자로서 불교 중흥과 공익을 위한 입장을 견지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자주 가짐으로써 분규사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1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종단 위원회 정류위원장과 이규범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1954년부터 시작된 정화사의 이념적 청산이라는 대 원칙하에 불교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분규사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는데 양 종단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한 "불교중흥을 위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말해 양 종단의 합의에 의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봉원사 땅이 매각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89년 당시 합의한 내용은 △선암사는 재단법인을 설립 7대 6으로 이사를 구성 이사장은 조계종에서 맡는다 △봉원사는 5대 5로 재산을 분할 관리한다 △나머지 분규사찰은 실무대표단에서 계속 협의한다 등이다.

합의안은 당시 양 종단의 중앙 종회에서 통과됐었으나 조계종은 원로회의에서 반대하고 태고종은 분규 당해사찰인 봉원사·선암사의 거부로 무산됐었다.

89년 당시에도 매각 대상으로 떠올랐던 봉원사 유휴부지는 총 10만여평으로 현금환매가 가능한 1만여평을 포함 개발가능한 3만여평이 매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계일각에서는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그나마 남아있는 교계 재산을 처분하는 방안에 다른 방도가 없는가 하는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양 완장스님들이 인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같은 종조·종지·교리"를 신봉하고 있고, 정화당시의 사찰 점유에 무리가 있었음을 조계종이 인정하고 있는만큼 피차 양보와 대화로 분규 사찰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

70년 당시 헐값에 팔아 종단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강남 봉은사가 최근 '땅 한평사기' 운동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땅은 '분규사찰이기 때문'이라는 냉소어린 지적을 교훈삼지 않더라도 상보정재인 불교재산의 처분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경숙 기자〉

# 신행단체들 전국조직 정비나서

## 재가연합, 5월경 새 신도회 결성키로

새로운 전국 규모의 신도회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은 지난 1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신년하례회 및 95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전국적 신도조직의 결성을 위한 견해를 밝혔다.

재가연합은 이날 회견을 통해 "불교개혁을 재가신도에게로 심화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재가신도 단체와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가칭) 새로운 전국적 신도조직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2월 초까지 구성한다"고 밝히고 5월경 새 신도회의 정식발족을 골격으로 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전국 신도회 결성 일정에 따르면, 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3개월간 지역조직 기초마련과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공청회를 가지며, 4월말경 전국 규모의 법회를 개최한 뒤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재가연합은 전국적 신도조직이 원만하게 결성되면 재가연합을 발전적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가연합의 새 신도회 결성에는 45개 소속 신행단체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전국불교운동연합이 대표단체로 참여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중앙신도회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전국적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 구성은 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제하고 "중앙신도회는 사찰신도회를 토대로 하는 교구신도회가 중심이 될 것이며 신도연합단체가 이에 참여하는 선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또 "명실상부한 신도 대표단체가 되도록 하기위해 각 신도연합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여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표명했다.

현대불교신문이 오는 2월부터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 면을 신설합니다.

신설 법공양 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 16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 8페이지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현대불교는 1차로 오는 2월 중에 월 2회, 매회 4면 정도를 시험제작하고 교계의 호응을 보아 가능한 한 5월부터 매주 4면씩을, 10월부터는 매주 8면까지를 법공양 면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법 공양면 신설**

## 각 종단·사찰 대상 제작 실비로

## 독자에겐 사실상 증면 효과

법공양 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제작을 원하는 부수(部數)의 실제 인쇄비 및 우송료로 한정됩니다.

현대불교가 일반 제작비 부담증가를 무릅쓰고 법공양 면을 신설하는 뜻은 주 16면 발행만으로는 각 사찰마다 행해지는 설법을 지상중계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 8~9면에 게재 중인 「자성법석」을 확대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공양 면을 이용하시려면 본사 소정양식에 따라 미리 계약을 맺되 이용 횟수 5회 이상, 이용 면수 2개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각 종단·사찰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경력 편집기자를 찾습니다

불교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현대불교」가 지면확대와 새로운 편집의 틀을 개척해 나가고자 경력 편집기자를 찾습니다. 불교 언론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뜻있는 전문인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 편집
◇ 모집인원 : 0 명
◇ 응시자격 : 신문편집경력 4년 이상
◇ 모집마감 : 2월 10일
◇ 응모요령 :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각 1통씩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02)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탱화속의 불보살 한 자리에 15면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謹賀新年
世界屈指의 重工業 先導企業-漢拏의 事業場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습니다



重工業專門業體로 快速成長을 거듭해 온 漢拏는 21世紀에 世界的 一流企業으로 跳躍하기 위해 事業의 世界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漢拏는 造船, 自動車部品, 시멘트, 重裝備, 環境·製鐵製鋼·發電·製紙펄프를 비롯한 각종 産業設備, 航空宇宙産業 등 重工業分野와 建設, 貿易, 資源開發, 海運 등 關聯産業分野에서 오랜 經驗과 蓄積된 技術力을 이어나가면서 百折不屈의 體質로 國際競爭力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中國, 東南亞, 中東을 비롯해 事業의 世界化에 눈부신 成果를 올리고 있는 漢拏는 全世界를 舞臺로 事業을 展開하고 있어 漢拏의 事業場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습니다.



三湖工團 鳥瞰圖

環境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있는 漢拏는 神이 創造하신 이 地球를 더 푸르고 더 깨끗하게 우리의 後孫들에게 물려줌으로써 "人類가 快適한 環境에서 豊饒를 누릴 수 있는 待望의 未來社會"를 實現하기 위해 邁進하고 있는 信賴와 創造의 企業입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레미콘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마이티정보통신 · 한라제지 · 배달학원

사 설

## 충격요법 아닌 제도 정착 기대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실명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지난 93년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와 함께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 걸었던 경제개혁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향한 완전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제도이다.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를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강행법규이다. 입법예고와 경과기간을 합치면 완전히 실시되기 위하여는 1년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을 보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처가 확실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의 투기와 탈세 등 비리의 원천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가격의 폭등이 겹쳐져 왔다. 금년 6월에 치러질 네가지 지방자치선거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동요가 예상되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와 맞물려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실명제의 단행은 문민정부의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개혁의 결단이 일시적인 충격요법에 머물지 않기를 우리 국민 모두는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제 부동산실명제를 실효성있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첫째는 토지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통합적인 운영으로 부동산투기를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둘째는 세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던 엄청난 세금비리사건에서도 세제개혁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탈세 등 세무부정부패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진세율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높여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는 토지과표의 현실화 작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물론 탈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와 '생산불교'의 이치를 내건 조계종단을 비롯한 우리 불교계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환영하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와 정착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부처님의 연기론적인 경제정의 사상을 바탕으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이 빠른 시일안에 이 제도가 자리잡히길 기원한다. 그동안 현정권의 여러가지 개혁작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비점이 속출했던 점을 거듭 되새기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 열린마당 부동산 실명제

## "종교재산도 특례인정 요구 마땅"

정부에서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아울러 실명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부동산 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일은 재정경제원의 실무자들이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위 실명제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 모든 부동산 권리는 실소유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있다(1조).

비실명을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범위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 또는 설정을 청구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취득계약)에 관한 차명등기, 가등기 및 타인명의로 둔 채 차명자(借名者)와 하는 소유권 이전확인계약 등을 말한다(2조).

이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부칙1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실제로 소유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3조), 본인명의로 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의 약정은 일체 무효이고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4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부동산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동산거래가 법률상 무효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조문으로 보인다.

실명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므로(5조) 금년 7월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이다. 이 기간내에 실명화 등기를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6조), 세금에 관한 특별취급을 받는다(7조).

그러나 95년1월1일 이후에 한 명의신탁계약의 경우는 실명화하더라도 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부칙2조).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11조), 유예기간내에 실명화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고(9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다(8조).

이 법시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이 3가지 있다. 첫째로 예외인정의 범위이다.

위 법안은 ① 신탁법·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 ②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 ③ 기업의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일시적 신탁등기 ④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아닌 부부간의 명의신탁 ⑤ 종중부동산 등을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고, 종교계로부터 종교재산에 관한 특례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종교재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종교재산에 특례는 언급이 없다. 종교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일반인들의 투기거래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법의 목적이 투기거래의 방지와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및 가격안정이다(1조 참조). 그래서 투기거래의 목적이 아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10조2항). 그렇다면 투기거래의 목적이 아닌 종교재산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명의가 조계종, 조계사, 본말사, 창건주 등으로 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통일된 지침을 총무원에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입법공청회에 불교재산에 대한 특례인정을 위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 의견



이 재 훈
〈변호사〉

## 현대만평

박 구 원




저들도 저와같은 인격체로…

# 시 론

## 올챙이 시절 잊은 인권경시



김 동 흔
〈경불련 사무처장〉

해방50년, 을해년 벽두는 정부의 요란한 세계화 구호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텐트농성으로부터 시작됐다.

UR타결로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세계화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은 70년대를 풍미한 '근대화'와 일맥상통한 일면을 갖고 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 근대화를 최단시일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기본권의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유신체제를 유지했었다. 일사불란한 효율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저항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었다.

30여년의 길고 긴 반독재투쟁으로 마침내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김영삼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정치 이념이 마땅히 과거군사정부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의 주된 테마는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반드시 경쟁에서 낙오하는 계층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는 3백만에 이르는 극빈층이 있다. 이들은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자본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GNP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10% 수준을 넘어선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되고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최저수준에 불과하다.

### 여권을 돌려달라

단지 경쟁력을 배양하고 국제감각만 익힌다고 세계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보장과 환경 등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돼야 한다.(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양심수가 6공 때보다 양산되고, 복지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 무엇보다도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인류의 공동선인 자유·평등·박애정신에 입각하여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선린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지난 9일부터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입국한 1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산업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수입해 들어온 합법적인 체류자들이다.

'여권을 돌려달라' '임금을 달라' '때리지마' '성폭행 하지마' 등의 피켓을 들고, 자신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면서 쇠사슬을 손에 감고 농성하고 있다.

대다수가 대학생 신분인 농성자들은 한국에 가면 월 5백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꾐에 빠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지정한 인력송출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1천3백불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타 비용을 합해 2천불의 비용을 들여 한국에 왔다.( 이 돈은 네팔 근로자가 일년동안 한 푼도 안쓰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임) 그러나 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루 12~13시간의 장기노동과 2백10불의 저임금, 인간 이하의 대우 뿐이었다.

###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한마디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들은 현대판 노예가 되고만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절규하고 있다.

첫째, 저희들을 기술연수생으로 데려왔으면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루 12~13시간 일을 시키면 그만큼 댓가를 줘야합니다. 셋째, 빼앗아 간 월급을 돌려줘야 합니다. 넷째, 공장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부탁했는데도 오히려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은 자유로와야 합니다. 여권을 빼앗고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거짓된 약속으로 속여서 우리를 데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조상들도 저희들과 같은 일을 겪었지요. 그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적처럼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누이들은 정신대로, 형님들은 징용으로 끌려가 성적 노리개와 노예로 전락한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다. 사양산업체에 외국인을 수입해 저임금 강제 노동을 시켜 경쟁력을 높히는 것이 세계화인가. 이렇게 해서 몇 푼의 돈을 번다고 국민 경제가 풍요로와지는가. 이미 부당한 처우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적극적인 반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의 양심과 인격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과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마땅히 수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인권보장과 산재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주는 〈육방예경〉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우려 주길 바란다.

"기업주는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고 항상 음식을 대어주며 수시로 노력의 대가를 치뤄주어야 한다. 병이나면 치료해 주고 가르쳐서 깨우쳐 주어야 한다."


# 1995년도 원효학당 신입생모집

원효학당은 원효대사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서양의 철학사상에서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교과과정과 강의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도록 학당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넓은 학문적 견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물음에 해답을 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모집과정 및 응시자격

| 모집과정 | 기간/이수학점 | 응 시 자 격 |
|---|---|---|
| 동장법사과정 | 4학기/48학점 | 고졸 및 동등학력 이상자 |
| 은장법사과정 | 2학기/24학점 | 본 학당 동장과정 이수자 |
| 금장법사과정 | 2학기/24학점 | 본 학당 은장과정 이수자 |
| 유리장법사과정 | 4학기/48학점 | 본 학당 금장과정 이수자 |
| 마니장법사과정 | 4학기/48학점 | 본 학당 유리장과정 이수자 |

### 원서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마감 ····· 1995년 2월 25일까지
2. 교부 및 접수처 ····· 본 학당 사무국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학당 소정양식) ····· 1부
2. 사진(3×4cm) ····· 3매

###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2. 합격자통보 ····· 개별통보

### 개설강좌

불교개론, 불교철학, 인도철학, 불교사, 불교언어, 원시경전강독, 대승경전강독, 논서강독, 선서강독, 원효사상강독, 한국불교강독, 교양강좌 등.

### 상설불교개론 안내

본 학당에서는 매학기 불교개론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와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본학당에서 상설하고 있는 불교개론강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3월 9일(木)부터 3개월간 ■시간 : 13:30~16:30
■대상 : 제한 없음 ■수강료 : 10만원

### 통신강좌안내

본 학당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출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통신강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강좌를 이용하시면 수강하고자 원하는 각 과목 강의를 각자 편리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학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學 長:李箕永 博士
副學長:鄭柄朝 博士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元曉學堂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575-6167~8 FAX 575-6169

# 생명현상 상호작용…불법은 환경보전의 등불

## 자연의 조화

다행히 오늘날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참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아직도 그러한 참사람의 터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경과 생태운회의 거치른 바다에 유일한 등불이 되고 있다.

몇해전 열반하신 성철스님의 무소유적 삶은 평생입은 누더기 한 벌과 지팡이 덧버선 몽당연필등 10여점으로 이루어졌다.

깊은 산과 숲속에서 다 떨어져 누더누더 기운 법의가 매스컴에 보도되었 때, 그것이야말로 140여과의 영롱한 사리보다도 살아 생전의 그분의 형형한 자연의 눈빛(眼光)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우리의 산하에 아직도 많은 스님과 불교도들이 이러한 참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한, 환경문제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성철 큰 스님의 발문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시산시수(是山是水)의 설법이다. 그런데 이말은 실제 중국의 청원유신(靑原惟信) 천사의 설법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종합한 것이다. "노승이 30년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였다. 그러던 것이 그 뒤에 어진 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 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을 깨치고 보니 산은 의연코 산이요 물은 의연코 물이더라."

체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산을 산으로, 땅을 땅으로, 물을 물로, 불을 불로, 바람을 바람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여겨서 마침내 그 자연들을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향락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분홍색 꿈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천년왕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하나밖에 없는 지구환경의 파괴라는 모순의 심연이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산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참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산은 산이 아니며 더구나 우리의 자아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이 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산이 아닌 모든 것과의 관계속에서 산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산은 산이 아닌 모든것에 열려있으면서 서로 관계속에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무한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위, 나무, 흙, 물등의 각 개체를 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조합해 놓았다고 해서 산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이 무한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고 숨쉬는 무한자 연속에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산은 산이 아니라야만 산인 것이다. 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이 단지 물이라면, 우리는 증류수만 마셔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한방울의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현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 한방울의 살아있는 물방울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의 일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물은 물만이 아니므로 물인 것이다. 물은 물이 아닌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정속에서 물인 것이다. 땅, 물, 불, 바람, 생명도 모두 무한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있는 한, 참다운 땅, 물, 불, 바람, 생명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 전 재 성 ②



◇ 한방울의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 '95 신행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경전읽기

경전 읽기가 신행의 한 양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진 법의 창고이다. 말하자면 삼보중의 하나인 법보가 담겨진 서적인 것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것이다. 경전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전 읽기를 통해 바른 불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전 읽기 신행의 바탕이다.

따라서 불자라면 누구나 경전을 읽어야한다. 최근 경전읽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경전읽기의 확대와 관련 몇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경전을 읽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전을 다라니 외듯(읽듯)한다는 것이 이와 관련된 우려의 핵심이다. 경전은 그 내용의 이해와 자각을 통해 불자로서의 삶의 질을 전향시켜 나가기 위해 읽어야 한다. 경전 자체가 어떤 신앙적 힘을 지닌 주문내지는 다라니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전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불교와는 그 기본사상이 다른 위경을 선택해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일선에서 신도들을 지도하는 스님, 법사들의 꾸준한 계도가 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일이기도하다. 또 미신적 성격이 강한 일련의 위경들을 죄악스럽게 대량 출간해 '법보시 책'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조절되어야할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읽는 자체가 공덕이라는 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경전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고 생활화 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불자의 삶은 하루 한 페이지라도 경전을 읽는데서 시작 할 수 있다.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지도 모른채 자신이 불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교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긴 경전. 이제 경전읽기는 올바른 경전의 선택과 꾸준한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참다운 불자의 생활자세로 정착되어야 한다.

### "바른 삶 이끌어주는 주춧돌"
#### 주문아닌 부처님 가르침 · 생활 지침돼야

# 신행수첩

### 자유로운 삶을 향해
#### 대불련 신흥사 수행학교

인간이 아름다운 까닭은 삶을 반성하고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혼자라야만 가능한 원초적 고독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더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처님 법에 매진하기 위해 대불련(회장 곽상인)은 오는 2월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제4차 수행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수행학교는 '무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향해'란 주제가 말해주듯 정진수행을 통한 불심과 참자아를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탄의 날' '참회의 날' '발원의 날'로 구분한 3일간은 부처님 생애에 관한 강의와 참회한 모습으로 부처님전에 서원하게 된다.

주제토론과 단주만들기, 나눔의 시간, 등을 가진 후 올리게 될 3천배 절수행은 모든 도반들이 자신의 아집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지혜를 깨닫게 할 것이다.

'비(迷), 오(悟)의 차이도 깨달으면 마찬가지'라는 진리를 알게 될 수행학교에 대학생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기대한다. (02)732-0239

### 무명을 깨치는 길
#### 법왕사 한글학교열어

몹시도 어려웠던 시절을 살면서 글을 배우고자 하는 뜻은 있었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어른 세대중에는 더러 우리글을 아직도 깨치지 못한 채 글모르는 답답한 한을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힘써 배우는 것만이 무지와 혼돈을 막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우리글·우리말 배움터 「기초 한글학교」를 마련, 26일부터 개강한다.

금생(今生)에 깨치지 못한 것은 내생(來生)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기에, 이 일은 늦었다고 저버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은 더더욱 아니기에 불연(佛緣)을 만나 밝은 혜안을 찾는 발심(發心)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



◇ 통일신라 신문왕이 부왕 문무왕의 뜻을 이어받아 창건한 감은사지에는 3층석탑이 남아있어 신라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수강대상은 남녀노소 제한이 없고, 강의는 법왕사 설법전에서 일주일에 2·3회 오후2시부터 진행된다. 대공스님 외 4분의 스님이 강의를 맡았으며 강의료는 무료.

(053)766-9088

### 차한진에 마음의 여유를
#### 월간다담, 차문화 특강

따뜻한 한잔의 차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향기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잔의 차를 마시기위해 물을 끓이고 차를 달여 내면서 지극한 정성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또 차를 통해 인생의 맛을 음미하기도 했다.

월간 다담(대표 용운)에서는 한국 차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차문화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범람하는 일본 차문화에 의해 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의 차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이번강좌는 2월 첫주부터 6월말까지 계속된다.

한국 전통행다법, 한국차의 개론, 한국차문화사, 한국차의 고전 등을 주제로 총 1백회에 걸쳐 진행될 한국차문화 특별강좌는 우리전통의 멋과 맛을 더욱 깊게 느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다.(02) 737-7876

### 신라의 숨결느낀다
#### 경주지역 유적 탐방

고대불교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경주지역 신라유적답사가 제격이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2월5일 겨울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는 제34회 신라문화유적답사를 갖는다.

이번 유적답사는 천군동쌍탑, 장항리절터, 골굴암, 기림사, 감은사터, 이견대, 문무대왕릉 등 함월산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경주군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장항리사지는 2기의 석탑과 불상좌대가 매우 뛰어나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함월산 기슭에 창건된 기림사는 건칠유회좌보살상과 대적광전, 석조치미, 전남루 등의 유물 유적이 현존하고 있다. 또한 신라31대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의 뜻을 이어받아 창건한 호국사찰 감은사는 현재 동서 삼층석탑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문무왕과 얽힌 전설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이밖에 이견대는 681년 신문왕이 해룡으로 화한 문무왕으로부터 만파식적과 옥대를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유적답사는 당일 코스로 오전9시 경주 신라문화원에서 출발한다.

(0561)771-1950

### 불교문화 원류를 찾아서
#### 유적 유물 중심 역사강의

우리문화 찾기 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적으로 우리의 것 을 찾아 떠나는 이들로 줄을 잇는가 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은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물관에서도 문화재에 관한 강좌를 마련하는 등 우리것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매주 토요일 '경주박물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생을 위해서는 초급반을 그리고 고교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중급반을 개설해 유적 유물중심의 역사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장답사와 삼국유사등 원서강독도 진행하고 있다.

(0561)772-5194

### "사경통해 보현행원 다지자"
#### 안성 도피안사 반야심경 사경책 무료보급



한권의 경전을 옮겨적는 일은 한사람의 전법자로 비유된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으로 사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야바라밀 결사도량인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도 결사수행으로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했다.

지난 8일 성도재일을 맞아 회원들의 수행법으로 반야심경 사경이 선택된 것이다. 반야바라밀결사 법주 광덕스님은 "반야심경 사경을 통해서 반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성취할 수 있고 보현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도피안사는 사경수행의 활성화를 위해 사경책을 무료보급하고 있다. 이책에는 사경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0334)676-8700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14

협찬: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 진화냐 퇴화냐의 갈림길

**진**화와 창조는 다 한마음의 나툼이다. 진화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진 것을 뜻한다.

마음의 차원이 달라짐으로 해서 육신의 기능도 발달하게 되고 모양 역시 달라지는 법이다.

창조란 곧 마음의 설계에 의해 밖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마음의 설계에 따라 진화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니 진화이면서 창조요, 창조이면서 진화인 것이다.

**기**어다니던 벌레가 한번 날아보기를 바랐을 때 그 날고 싶다는 마음이 곧 진화력인 것이니 수억겁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적응하는 일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있었는데 그 꼬리가 점차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꼬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날고 싶다, 날아야만 하겠다고 했을 때 날개 달린 모습으로 차원을 바꾸게 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저냥 살아서는 안 된다. 진화와 창조가 다 마음의 나툼일진대 퇴화 또한 같다.

사람으로 태어나 차원 높은 설계를 할 줄 모른다면 창조력은 시들고 그러므로 부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알지 못하게 된다.

**진**화의 완성은 대자유, 무량공덕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그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은 우리의 도반이다. 삼계는 그런 구도의 형제들로 가득찬 대도량이다.

부처님은 고로 삼계도사인 것이다.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대우자동차 전농 판매
전화 : (02) 215-1472
215-1071
팩스 : (02) 215-1076

# 교차로



보광불교대학 개설한

## 송보영 법사

"광범위한 불교사상을 쉽고도 체계적인 강의로 생활불교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심포교의 성공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서울 상계동 지역에 지난 20일 보광불교대학(노원구 상계2동 602-1 화일빌딩 602호)을 개원한 송보영법사의 다짐이다.

65년 학군3기로 임관해 30여년동안 군포교에 전력을 다해온 송법사는 지난해 10월 대령으로 전역하면서 불교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보광불교대학을 개설했다.

## "지역불교 활성화에 주력"

노원역앞 화일 빌딩 6층에 자리한 보광불교대학은 불교근본교설, 불교경전이해, 불교와 현대사 등 기초교리와 한문, 국악 등의 교양강좌를 통해 불자들의 지혜를 넓혀주게된다.

"작은 불교대학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포교와 지역불자 단합을 도모할 생각입니다"라는 송법사는 군포교 경험을 살려 특히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보영법사는 보광불교대학을 시민참선의 공간으로 사용, 참선지도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생활불교 신행불교 정착에 그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은〉

### 광명선원서 설법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은 오는 24일 방배동 광명선원 관음재일법회에 참석, '기도의 올바른 의미'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 제주노인마을 설립계획



법성스님(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은 지난 13일 제주노인마을 후보지 물색차 제주를 방문했다. 스님은 현재 경기 가평 상면 봉수리 3만7천5백평 부지에 한국 최초의 노인복지마을인 성라노인마을을 건립중에 있다.

###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철오스님(사천 구룡사 주지)은 지난 1일 경주 도투락원드에서 열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 신년조찬 법회 열어



정법륜스님(인천불교연합회 회장)은 지난 17일 인천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에서 인천불교연합회 신년 조찬법회를 겸한 '국태민안과 국가 재해소멸'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인천불교연합회 회원스님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 95년 인천지역의 불교활성화를 다짐했다.

### 기획실 홍보위원으로 위촉



제원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난 4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 성동구 사암연회장에 선출



법경스님(능인정사주지)는 지난 13일 개최된 성동구 불교사암연합회 신년교례회및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스님은 올해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맑은 환경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받아



최형우씨(전 내무부장관)는 오는 20일 동국대에서 내무행정 및 동국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저작권 세미나 참석



윤청광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등국출판사 대표)은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저작권 국제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참석키 위해 지난 14일 출국.

### '문학아카데미' 대표에

박제천씨(시인)는 최근 '문학아카데미' 신임대표에 선출됐다. 박씨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문학상」「한국시인협회상」 등을 수상했다.



### '나무위의 사람보다 …' 펴내



백영식씨(공군 군종감)은 그동안 설법 강의 투고의 글들을 모아 '나무위의 사람보다 땅위의 사람이 더 위태롭다'를 명성출판사에서 펴냈다.

### 과천서당 개원



박동춘씨는 지난 17일 과천 부림동에 초·중·고·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등을 강의하는 한문서당을 개원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박서봉스님,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등이 조계사 대웅전 신년하례에 참석했다.

## 종단협의회 주최 신년하례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한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23개 종단 대표와 권익현 국회정각회장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안동일 재가연합 대표등 불교단체장 2백여명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김재중 천도교교령 강원룡목사 주돈식 문체부장관 송월주스님 김근덕 성균관장 오녹원스님 한중환 민족종교협의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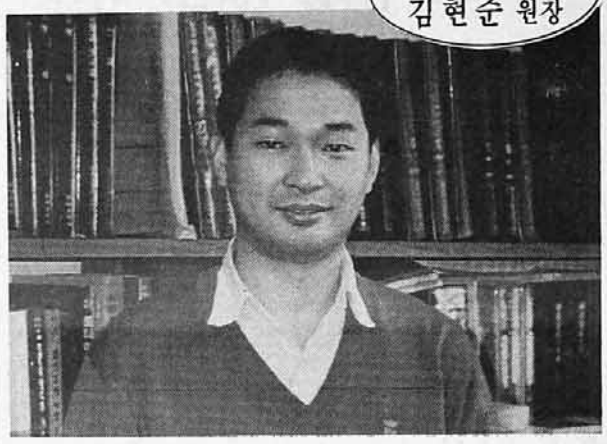
## 문체부 초청 종교지도자 새해 인사모임

문화체육부가 주최한 '종교지도자 새해 인사모임'이 지난 13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박서봉 태고종총무원장을 비롯 불교계 스님과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등 각 종교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 '95 불교계 샛별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



## "불자가 불교 모를 때 안타까워요"

### 신행연구원 설립 … 좋은 인연운동 펴

아무져보이는 체구에 꾸밈없는 털털한 미소,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씨의 첫인상이다.

깨달음의 숲이라는 뜻의 효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최근 '불교신행연구원'을 설립하여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갈 불교신행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신·해·행·증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행입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생활과 같이하는 연구를 불교신행연구원에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그는 경북사대부고 시절부터 불교활동을 해온 신심 돈독한 정통파 불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79년부터 12년간 〈한민족정신문화대백과사전〉의 불교부분을 맡아 연구했을 만큼 그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활동은 남달랐다.

김현준씨는 각 분야의 뜻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문화연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기도 했고, 도서출판 효림을 설립해 책을 통한 불교포교, 불교출판문화창달에도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사찰내에서의 예불, 기도, 참선등 불자들이 항상 행하면서도 그 행법과 의미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는 그는 "일상속에서 무심히 혹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불교 신앙, 의례, 수행들의 깊은 의미를 불자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신앙, 지장신앙 등 각종신앙을 오늘날의 실생활에 맞게 역사적으로 정립해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연구와 가까운 곳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한 좋은 인연 만들기 모임 활성화 등이 불교신행연구원이 펼쳐나갈 사업들이다. 이밖에 월 1회 불교문화기행, 신행을 위한 수련대회, 신앙, 의례, 수행에 대한 주제별 논문집 발간, 각종 동우회 운영 등을 통해 바른 신행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욕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을 전개할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믿음직스러움을 더하는 것은 넘치는 신심때문인것 같이 느껴졌다.

지난 91년 '사찰속에 깃든 의미'를 집필해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불교의 겉만을 알기 보다는 불교 속의 하나 하나 깊은 의미를 되새겨 짚어나가는 연구로 올바른 신행문화를 제시하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향한 믿음을 올바로 연구하고 생활속의 정법수행을 구현하는 문화운동전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은자 기자〉

##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천수회



◇ 무연고 할머니들의 목욕뿐 아니라 외로움의 때까지도 씻어주고 있는 천수회 보살들.

### 자광원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주부 봉사모임

## 매주 무연고·장애인 할머니 정성껏 돌봐

"할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서 와,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은 안오는줄 알았잖아!"

서둘러 달려온 한 주부의 손을 꼭 잡으며 오랜동안 떠나보냈던 자식을 반기듯 눈물까지 글썽이는 어느 할머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성남 자광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엔 멀리서부터 이곳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음을 재촉하는 주부불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선다.

연고가 없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 70여명이 모여 사는 부처님 마을 자광원의 금요일은 자원봉사 주부 10여명이 이곳 할머니들을 찾아오는 날이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생기가 돈다.

조계사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주부,멀리 잠실에서 자광원 사정을 듣고 달려온 주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키로 한 주부 등 이곳에 정기적으로 오는 주부들은 특별한 모임이나 단체의 회원이 아닌 각자의 뜻에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신심깊은 불자들이다.

그러나 어느덧 이들 자원봉사주부들은 언제부터인지 자신들을 천수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천수실이라 이름붙여진 방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사랑을 채워왔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은 좋아 보이시네요. 목욕하신후 제가 얼굴에 영양크림 발라 드릴께요" 천수회 보살들은 할머니의 옷을 일일히 벗기는 것에서부터 목욕을 시켜드리고 새옷을 갈아 입히는 일까지 각각 분담해 정성스런 손놀림을 계속한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장애로 인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주부들의 이마엔 금새 땀방울이 맺힌다.

그런 중에도 이들 천수회 보살들의 시선은 오늘도 어김없이 합장주를 돌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로 모아진다.

"또 자식들 생각나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자꾸 나빠지잖아요" 한달새 눈에 띌 정도로 수척해졌다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한 자원봉사주부가 눈물을 닦아준다.

할머니들을 씻겨 드린후 나온 빨래를 마치고 서로의 정을 나눈 것도 잠깐, 다시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천수회 보살들은 서운해하는 할머니들에게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자광원을 나선다.

4년째 이곳에서 할머니들을 보살펴 오고 있다는 박희락성 보살은 "처음엔 할머니들의 변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으나 부처님 뜻을 따르는 공부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향기롭게 느껴졌다"며 이곳 할머니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길 지심으로 서원하고 있다는 따뜻함을 전했다.

〈성남 = 한명우 기자〉

## 게시판

▲설날 정초참배=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신년인사를 겸한 부처님 참배기간으로 정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할 계획이다.

▲출판인재 모집=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불교출판의 영역을 넓혀갈 젊은 인재를 찾고 있다. (02)732-2403

▲신입생 모집=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는 1년과정의 9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개강은 3월10일. (02)921-9721

▲맑고향기롭게 스티커 보급=현대불교신문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를 무료 보급하고 있다. 본사 1층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에서 보급하는 스티커는 차량용, 일반용 등 4종류. 또한 '여시아문'은 맑고 향기롭게 살기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맑은 물찾기 실천을 위해 무공해 비누, 천연 주방용 세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여시아문 (02)737-0695〉


#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 집 인 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특별전형 30% |
|---|---|---|---|---|
| 불교학과 | 2년 | •주간 40명 •야간 20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br>•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br>•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br>•주민등록등본 1통<br>•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br>•출가희망자 |
| | 4년 | •통신 40명 | | |
|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 2년 | •주간 60명 •통신 40명 | | |
| 중 국 어 과 | 2년 | •주간 40명 •야간 20명 | | |
| 불교미술과 | 2년 | •주간 20명 | | |
|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 2년 | •주간 40명 •통신 20명 | | |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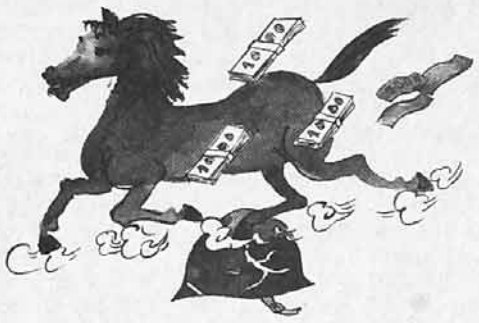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차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1월 27일까지
- 2차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울산 세종서점:74-126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삽화 · 이기선

# "허욕은 악습 동반…직분에 충실하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⑫

재가자의 現報

## 오관을 잘다스리고 착한 벗 사귀어야

군인이 강도질을 하였다.

빅주의 사건이다.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충군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강도를 하였다니 말이 되는가. 그것도 유흥비의 빚에 겁을 먹고 강도행위를 하였다고.

사람의 마음은 여러 형태의 작용을 한다.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번뇌의 욕망에 사로잡혀 허욕을 부리려고 한다. 허욕은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악습을 동반한다.

일확천금하려는 한탕주의가 허욕의 심보다. 이 허욕의 심보가 발동하면 앞뒤가 뒤바뀌고 전도된 무명으로 달려나간다.

무명속을 헤쳐나가려 하지만 사실 어둠속에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캄캄한 방에서 비밀한 곳에서 도박을 일삼는다. 이 군인도 경마에 손을 댔다.

경마가 공공적인 오락이라고 하지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행심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한번만 잘하면 떼부자가 된다. 그때부자가 언제나 말썽이다.

### 안락얻는 4 원칙

어느때 마납(摩納)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재가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지 법으로 현세의 이익을 얻고 안락을 얻게 될것이다. 무엇이 넷이냐하면 첫째는 능히 정근하는 것이요, 둘은 능히 오관을 수호하는 것이요, 셋은 착한 벗을 넷은 정리(正理)로 목숨을 기르는 것이다. 어떤것이 정근인가. 그 직업을 따라 집안 살림을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다. 정치가가 되거나, 농부가 되거나 목동이 되거나 언제나 그 업을 따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추위 더위 비바람 기갈 병고에 짓눌리지 말고 그 업에 충실하는 것이 정근이다. 어떤것이 오관수호하는 것인가. 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모아서 권력층, 도둑, 물불의 화난을 당하지 않고, 또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음이 수호라고 한다.

어떤것이 착한 벗을 만나는 것인가. 사람이 벗을 가까이 할 때 성품이 현량한 사람을 만나야 하며 간음, 도둑질, 도박, 음주와 멀리떠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아니한 번뇌는 영원히 나지않게 되며 아직 나지 아니한 희락은 바로 나게되는 그러한 벗을 만나는 것이 착한 벗을 만나는 것이라 한다. 어떤것이 정리로 목숨을 기르는것이냐. 재물의 다소를 헤아려 비용을 절약하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하며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려는 뜻은 있으면서도 행복추구의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직업은 천직이다. 자기자신의 소질과 취미에 합당한 직업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자신의 직업이 자기 성격에 알맞지 아니하면 덜 조여진 나사처럼 흔들거린다. 아니 흔들거리다 빠지고 빠져 버리면 그 기계는 멈추게 될것이다. 언제나 조여져 있어야 하고 기름칠이 잘되어야 기계가 움직이게 된다. 우리의 직업도 제마음에 조여진 것으로 기름칠이 되어야 한다.

오관은 번뇌를 자아내는 발원지다. 사물에 대한 욕심이 오관에서 발동한다. 감각기관은 사물을 환락이나 유흥으로 끄달려가는 진드기다.

### 행복추구의 방법

우리는 오관의 진딧물을 골라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욕망의 옴이 올라온 몸을 부스럼덩어리로 만든다. 오관을 다스리는 고약을 마음 깊이 붙여두고 번뇌의 고름과 종기의 씨눈을 뽑아버려야 한다. 참다운 생활을 하려면 도반 반려 친구가 좋아야 한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듯이 나쁜 친구를 가깝게 두면 저도 모르게 악행·도박·유흥에 빠져들게 된다.

건실하고 정직한 도반을 만나면 항상 책려와 충고에서 생활하게 되어 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선우(善友)가 한 사람있다는 것은 선보(善報)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것을 깊이 통찰하여 정리(正理)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바른 이치 진리 삶의 방도처럼 엄숙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부처님이 교설한 네가지 삶의 길을 따른 마납(摩納)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

군인의 길은 나라에 충성하고 겨레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정의·명예를 존중하는 사관교육이 변질되면 안된다. 조국의 가슴에 멸사봉공의 꽃다발을 안겨주어야 할 군장교가 범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정근을 닦고 오관을 다스리고 선우(善友)를 만나고 정리(正理)로 생활하는 바탕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교설을 배우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고 또한 도덕율을 정리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 세월 저편의 '혼 만나기' 40년

산문밖의 禪單

문화재보존과학연구실장 김 동 현



시인은 한줄기 바람결에서도 선뜻 세월의 가없는 아득함을 뛰어넘어 천년전의 세월을 살기도 한다. 무슨 신통력의 조화가 아니다. 그가 세월 속으로 가고 세월이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그렇다. 역사의 영욕이 서린 중앙박물관 마당 한켠을 터잡아 서 있는 저 석탑을 깊은 눈길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에게라도 신통력이 발동한다. 아무렇게나 생긴 무표정의 차가운 돌을 두드리고 쪼아 뽀얀 살결을 이루고 피를 흐르게 하는 창조의 에너지, 어둠의 장막을 걷고 한줄기 빛을 뿜기 위해 마지막 망치의 손잡이를 거머쥐는 장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의 손에 들려진 망치와 정은 반짝이고, 땀냄새가 코끝을 간지른다.

그후 군복무를 마치고 중앙박물관에 취직했다. 전 문화재연구소장인 김정기선생(한림대 교수)과 함께 감은사지와 동해굴 발굴에 나섰다. 문화재와의 삶을 시작한 그때가 1959년이었으니 올해로 서른일곱해째를 맞는다.

70년에서 13년 동안은 경주에서 살았다. 불국사 천마총 황남대총 노압지 환용사가 그의 일터였다. 그때 큰 희의에 빠졌다. 천마총은 봉분을 봉황대라고 해서 마치 조그만 두개의 산을 이루듯 거대한 규모다. 봉토의 흙만 파내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이득도 없는 1천년전의 무덤을 파내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뭐하는 일인가."

나중에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고서야 생각을 바꿨다. 장식물 하나하나가 꼼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인은 특이합니다. 당시 문화의 혜택에서 가장 거리가 멀었던 지역에서 어떻게 저런 걸작이 나올 수 있을까. 992년 동안 왕조를 유지해온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대담성과 꼼꼼함의 조화, 거기서 신라인의 정신을 보았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신라정신은 그의 삶의 업이 되었어요. 단청과 고건축의 권위자로 당시 국립박물관에 재직하던 임천(林泉)선생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아르바이트로 한 일이 '강진무위사 수리보고서'의 도면을 그리는 일이었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심이었다 싶게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그렸어요. 임천선생의 마음에 들었나봐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온전히 그의 작업으로 복원이 이뤄졌다. 근정전 주위에 흩어져있던 파편을 한겨울 석달 동안 모으고, 마침내 복원도를 만들어냈다. 복원도에 따라 탑이 우뚝 솟았을 때는 성취감보다는 "아, 이렇게도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경외감에 젖어들었다.

## 조상들의 정신 복원에 희열느껴

문화재보존과학연구실장 김동현(金東賢·58).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40여년을 결길 넘보지 않고 한길로 전념해온 삶의 이력이 그렇고, 자유자재하게 시간을 건너뛰며 살아왔으니 또한 그렇다. 시간뿐만이 아니다. 달빛 밝은 날 경주 환용사에 서있으면 그는 신라인이 된다.

신라인의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은 그의 직함이 알려주듯이, 몇백년에서 길게는 1천년이 넘는 저편의 삶과 정신의 복원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지식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열정이 덧붙여져야 세월의 더께가 켜켜이 쌓인 그곳의 근방이라도 서성거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불가능하다. 당시의 삶과 은밀히 내통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 그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무슨 무슨 종교를 이름하는 신앙말고 언설의 표현을 넘어서는, 몸으로 느껴지는 무엇이 있잖아요"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러면서 박물관 경내에 있는 석탑을 가리킨다. '저 석탑은 혼자 서있는 게 아닙니다. 그곁에는 언제나 저 돌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장인의 영혼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살았던 선조들의 먹고사는 일상사와 꿈을 기원하고 좌절에 한숨짓는 이야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현씨가 문화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우연찮은 기회였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학교 은사님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평생의 업이 되었어요. 단청과 고건축의 권위자로 당시 국립박물관에 재직하던 임천(林泉)선생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아르바이트로 한 일이 '강진무위사 수리보고서'의 도면을 그리는 일이었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심이었다 싶게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그렸어요. 임천선생의 마음에 들었나봐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온전히 그의 작업으로 복원이 이뤄졌다. 근정전 주위에 흩어져있던 파편을 한겨울 석달 동안 모으고, 마침내 복원도를 만들어냈다. 복원도에 따라 탑이 우뚝 솟았을 때는 성취감보다는 "아, 이렇게도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경외감에 젖어들었다.

**"저 석탑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저 돌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장인의 영혼이 맴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혼이 깃들여져야 해요."**

거름이 되었다.

"모든 일에는 혼이 깃들여져야 해요. 극성이 아니라 정성말이예요. 송광사 복원에 참여할 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사가 아니고 작품을 만드다는 생각으로 일하라'고 잔소리를 많이도 했죠. 1천년이 넘는 유물이 걸작으로 평가되는 유일한 이유는 혼을 쏟아붓는 장인정신 아니겠어요."

그의 방은 마치 도서관의 서가같다. 2천5백여권의 관련서적과 청사진 두루마리가 빼곡히 쌓여있다. 창밖으로는 박물관 경내. 이곳은 시공을 넘나드는 곳이다. 그의 책상 맞은편 벽에는 무슨 동물의 문양일까 하고 궁금증을 돋구는 액자가 하나 걸려있다. 치미, 재앙을 막아준다는 막새로 쓰이는 기와에 새겨진 문양이다. 13세기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수염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수염이 없다. 먼길을 떠나와 작업에 참여했던 기와공의 부모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김실장은 풀이한다.

"손으로 빚었는데 거기에 엄지손가락 지문이 묻어있어요. 고려에 살았던 이름모를 기와공의 체온은 물론 얼굴 생김이며 눈빛까지 아련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물이나 마음의 현상에 대한 일체의 고정관념이 공중분해되는 경험이 7백년전과 교감하는, 저런 아득함일까, 언어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삼매의 경지가 저런 것일까. 화두하나 받아둔다.

〈정성운 기자〉


# 桐裏山 泰安寺 預修齊 法會案內

새봄을 맞이하여 불자님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이 연속하는 인생고해(苦海)에서 사뭇 고생이 많으실줄 염려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지없는 고난은 모두 한결같이 과거에 우리 스스로의 무명(無明)과 그에 따른 그릇된 행위 곧 공업(共業)의 결과이며, 현재 우리들의 생각과 행위가 또한 미래와 내세(來世)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인과필연(因果必然)한 우주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상(無常)한 세월이 너무나 신속하여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할일없이 업장(業障)에 끌려 험난하고 망망한 저승길에 방황하게 되오니 어찌 비참한 회한(悔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달이 든 올해는 모든 불사(佛事)공덕이 각별이 수승하다는 전통에 따라 이번에 저희들이 「왕생정토경」의 가르침대로 봉행하게 되는 「예수재」는 앞으로 닥쳐오는 행복과 내세의 극락을 기약하기 위하여 미리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쌓는 절실하고도 희유(稀有)한 공덕의 법회입니다.

그래서 오는 음력 정월 7일(양력 2월 6일)에 입재(入齋)하여 49일 동안 기도 정진하고 음력 2월 26일(양력 3월 26일)에 회향법회를 전통적인 의식을 갖추어 여법히 봉행하고자 하오니 저희들과 인연이 같은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隨喜)동참하시어 영생복락의 불연을 한껏 빛내 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기 2539년 1월 일

▒증 명 석 청 화 (釋 淸 華)
▒주 지 석 도 일 (釋 道 日)

**안 내**

49일 지장기도 생전 예수재
▒기도 입재:1995년 2월 6일(음 1월 7일)사시
▒기도 회향및 예수재:1995년 3월 26일(음 2월 26일) 오전 11시
▒예수재 동참금:1인당 십만원
▒조상천도:영가 1위당 오천원
※동참신청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신청도 받습니다.)
※당일교통편:곡성역 및 곡성 종합 버스 터미널에 태안사행 봉고차 대기합니다.

**태안사 전화안내**

종무소:☎0688)62-4906
재무실:☎0688)63-4615
원주실:☎0688)63-1627
팩 스:☎0688)63-7811

**태안사 온라인안내**

| | |
|---|---|
| 우 체 국 | 502468-0010113 |
| 농 협 | 623-01-032931 |
| 국민은행 | 555-01-0331-233 |
| 예 금 주 | 태 안 사 |

전남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大韓佛敎 曹溪宗 桐裏山 泰安寺**

'95 불교학술계

# 묵직한 논서발간 · 각종 강좌등 기획

## 대장경 전산화에도 주력 … 세미나 준비는 아직 미비

올해도 불교학술계는 각종 불교사전 및 논문집 발간, 자료집 · 번역서 출간,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움 등 다양한 학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소가 음력을 기준으로 새해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있어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학술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음력을 기준으로 한 계획은 학술행사들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원을 교육 · 출판 · 학술 분야로 구분, 체계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모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올해도 〈불교대사전〉 편찬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가산 학술상 및 연구비선정자 확정 · 시상 △원전연구회 연구성과물 출간기획 △〈가산학보〉 제4호, 〈한국불교사상대계〉, 〈역주역대고승비문〉 제4권 출간 △원전연구회 · 한국불교학전문 교육이외에, △국내외 불교학연구자 및 연구현황을 자료화해 일반인에게 개방할 「가산불교학자료실」기획 등이 주요한 사업들이다.

한국불교학의 메카로서 최근 부설 연구원에서 부속기관으로 승격, 연구교수제 도입과 예산 증액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은 최근 〈Buddhist Thought in Korea〉(영문판)을 발간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2월말의 〈한국의 불교학연구: 그 회고와 전망〉 발간을 시작으로 풍성한 학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불교사상사 개관〉(중국어판) 발간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한국불교전적사전〉, 〈불교학보〉 제32집 발간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역주 △〈Dictionary of Korean Buddhism〉(영문판) 편집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2년여의 연구소 안정화 토대 준비기간 동안 교정자원봉사요원 150여 명을 양성, 올해를 연구소 사업 안정화 시기로 잡고 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자료입력완료 △강원교재 프로그램의 보완 · 개발 완료 △대장경 목록 · 해제 검색프로그램 개발 △96년 3월 대만 불광산에서 열릴 제3차 전자불전협의회 기획 등.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은 △〈구산선문 자료집〉, 〈혜성스님 어록〉, 〈16국사 자료집〉 발간 △보조사상연구원 연구발표 논문집 발간 △정례학술발표회 개최와 아울러, 96년도에 가질 예정인 국제학술회의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1월달의 △제10회 「불이상」시상식을 시작으로 △초 · 중 · 고교교사 불교연수회 △정례 국제학술세미나 △불교개론 강좌 등을 기획하고 있다.

백련불교문화연구원(원장 원택)은 〈백련불교논집〉 제4집 발간과 정례 학술세미나를 준비중이고, 회당학회(회장 번종오)는 학보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와 함께, 서울 · 부산 · 대전 등 지역단위 학술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이와같은 대표적인 학술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소와 학회들은 아직 신년 계획서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부족의 원인과 함께,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위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김재경기자〉

## "계율은 생태계 조화의 열쇠"

### 윤리 · 환경문제 「열반경」 통해 조명

신성현씨 박사논문서 주장



◇신성현씨

오늘날 환경과 문명의 위기시대에 들어선 한국사회속에서 불교가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계율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나왔다.

94년도 동국대 후반기 박사학위논문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에서 신성현씨는 "현대사회 속에서 문명의 과소비로 빚어진 인간성 소외, 그리고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부조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고 진단하고, 불교의 계율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열반경〉 성립 당시 인도의 사회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열반경〉은 사회와 교단이 지극히 혼란스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상과 윤리를 요구하는 중생에게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다'는 불성론(佛性論)과 이러한 불성의 자각은 다름아닌 계율을 지님으로서 발견할 수 있으며, '계율은 정법을 지키는 계율이 돼야한다'는 계율론(戒律論)을 주창한 것이 〈열반경〉이 갖는 요지다.

"현대문명의 변화는 기존의 윤리가 아닌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기에, 이제는 윤리의 차원을 인간을 떠난 동물, 나아가 생태권(生態圈)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는 신씨는 "윤리의 원형 내지는 근간을 〈열반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전속 대화도 대인 커뮤니케이션

### 선업스님 석사논문 「불교경전에 …」서 밝혀

불교경전을 현대언론학의 보편적인 분석틀인 커뮤니케이션학에 의거,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업스님은 94년도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후반기 석사학위논문 〈불교경전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적 분석〉에서, 방대하고 풍부한 내용의 불교경전이 대인(對人) 커뮤니케이션의 제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경전에 설해져 있는 많은 대화상황들을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 단순화시켜 그 요소들을 분석했다.

### 불교학보 · 백련불교논집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과 백련불교문화연구원(원장 원택)은 최근 〈불교학보〉 제31집과 〈백련불교논집〉 제4집을 각각 발간했다.

〈불교학보〉에는 △「균여전의 중요성과 그 문제점」(김영태) 등 11편, 〈백련불교논집〉에는 △「성철스님의 행장과 말씀」(원택) 등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한국사찰의 주련

해 인 사



◇해인사 수다라전의 주련

## "생활 현장이 곧 원각도량일세"



권 영 한

◇법보전

**圓覺道場何處**(원각도량하처)

**現今生死卽時**(현금생사즉시)

원각도량은 어느곳인가.

지금 생사가 있는 바로 이 자리.

**해 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도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생활현장이 바로 그 도량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의 게송이다.

이 주련은 조선 고종때의 납천(南泉)스님이 짓고 쓴 것이다. 남천스님은 합천 출신으로 18세에 해인사에 출가했는데 선학원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수다라전

**四十年說會何法**(사십년설증하법)

**六千卷經獨此方**(육천권경독차방)

**해 설** 부처님께서 40여년간 설하신 내용이 6천여권의 경전으로 정리되어 여기 있으니 모든 수행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불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40년 말씀이 일찌기 무슨 법문이었을까.

육천권의 경전이 홀로 여기 있네.

수다라전의 앞면 중앙 좌우 기둥에 걸린 이 주련은 위당 신관호(威堂 申觀浩 1810~1888)가 쓴 것이다.

약 력

- 1931년 경북 안동 출생
- 연세대 이공대 수학과 졸
- 안동중 안동여중 경안중 교사 역임
- 한국불교대학 이사
-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등 저서다수.

## 좌선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문 희망찬 새해, 스님의 법체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좌선을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요.

(충남 천안시 신부동 · 김진선)

답 앉아서 자리틀고 해야만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중에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노릇도 했다가 남편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렇게 쉴새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천차만별로 보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들이고 내는 것을 몰록 놓고 마음 편히 가야 보면서도 편하고, 들으면서도 편하고, 서서도 편하고, 앉아서도 편하겠지요. 편안한 그 자체가 좌선이자 행선이고 참선인 것입니다.

행 · 주 · 좌 · 와 모두가 마음도리이기 때문에 좌선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따로 좌선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군요. 좌선이냐 아니냐를 논하다보면 진정한 좌선, 진정한 참선을 할 수 없고 어느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될 지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는 마음의 불을 켜야 하는데 몸뚱이가 앉았다고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외가닥 전선으로 불을 켤 수 없듯이 자리틀고 앉을 생각 하시기 전에 마음도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 삼매에선 생사의 업이 없나요

문 한 생각 일으키면 한 몸을 받아나고 백가지 생각 일으키면 백의 몸을 받아난다고 들었습니다. 일에 열중해서 삼매에 빠져있는 때는 생사의 업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경기 과천시 문원동 · 황인수)

답 이 우주에는 비유하자면 그물같고 체와 같은 법망, 진리의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연의 그물이요, 업의 법칙의 그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짓는 생각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다 포착되는 그런 그물 말입니다.

내가 신 · 구 · 의로 들이고 내는 것이 모두 한치의 오차나 빈틈도 없이 입력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 설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눈 · 귀를 속일 수 있다 해도 이 진리의 그물의 눈 없는 눈, 귀없는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 · 구 · 의로 짓는 업이 다 한 생각에 달려있듯이 쌓인 업을 녹일 수 있는 것도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이란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천년 어둠에 잠긴 동굴 속이라도 촛불 하나 켜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듯이, 어둠이 본래 있지 않은 것처럼, 업 또한 그와 같아서 한 생각에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인 줄로만 알아서 '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몰락 떨어지지 않는 한 그물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반야심경에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하였는데 공과 색을 둘로 보는 한에는 본래 공한 성품에 계합되지 않으니 한 생각 일으키는대로 채곡채곡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래 나를 있게 한 근본 주인공 자리는 공하여 업이라는 실체가 없고 그럼으로써 업이 불을 자리도 없건만 공한 사실에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이 없는 함'이 되질 않고 지은대로 등짐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한 주인공 자리에다 몰락 놓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매다 무심이다 하는 것도, 삼매요 무심이라하면 이미 불을 자리가 있는 것이니 몰락 놓아 공한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리, 그야말로 말이 끊어진 자리가 그대로 여여하고 청정한 공의 자리입니다.

## 혹성도 끌어다 볼 수 있다는데

문 공부의 차원이 높은 이들은 가령 혹성의 세계를 가서 볼 수도 있고 끌어다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봄 밖으로 자유로이 드나듦을 말하는 것인가요.

(경기 안산시 원시동 · 박순례)

답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못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먼 곳, 아무리 넓은 곳 좁은 곳이라도 못 들어갈리 없고 못 올라설리 없고 못 미칠리 없습니다. 은산철벽이라도 뚫지 못할 게 없고 혹성이라 해서 멀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잡힐 것도, 뭘 것도, 빛깔도 없는데 무언가 빛깔있고 잡을 게 있는 것처럼 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 삼킬 수도 없고 자유자재한 대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뭔가 체가 있는 듯이 생각해서 들어온다 나간다 한다면 어떻게 삼천대천세계를 집어 삼킨다 하고 혹성을 끌어다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니 옛날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성을 끌어다 본다는 건 마음이 뭔지 가르치고자 이른 것인데 끌어다 보기는 무엇을 끌어다 봅니까. 그냥 하나인 것을요. 불에 들어가면 불덩이와 하나요, 물에 가면 물과 하나요, 공기 · 흙과 하나요, 영계로 가면 영계와 하나요,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니 혹성도 내가 될 수 있고 우주도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전체요 하나라서, 아니 삼라만상, 저 태양도 지구도 세상 두두물물도 다 근본은 마음이니 굳이 하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전체입니다. 그러니 끌어오고 끌고가고가 따로 없습니다. 마음도리에 서라면 우주가 한동네요, 내 한몸 살림살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몸 밖이다, 몸 안이다 하면 둘이 됩니다. 그런 생각말고 우주 삼라만상과 한자리인 주인공을 굳게 믿고 나가십시요.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소금을 바꿔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佛子가 먹는 소금,

인산죽염은 생명원소들이 살아있는 굵은 소금을 왕대나무통 속에 넣고 입구를 지리산 황토로 봉한 다음 1천도 이상의 센불에 구워 낸 약소금입니다.
죽염의 창제자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 인산죽염.
소금을 인산죽염으로 바꾸십시오.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 죽염요법 상담/질병치료 정신수양을 위한 쑥뜸 상담



절찾아 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팜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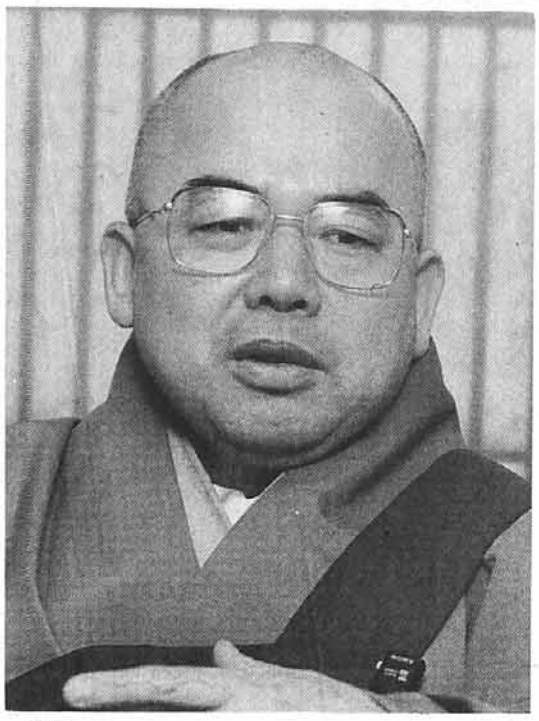
가람企劃 대표 이 주 영 合掌

# 수 요 인터뷰

## "교육체계 확립 사회이끌 인재양성에 최선"

## "10대사업 전개 포교혁신의 길 닦을 터"

한국불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교육과 포교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할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이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개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개혁종단이 총무원 기구를 개편하면서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과 포교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각각 독립 발원화시킨 교육원·포교원의 수장인 교육원장 원산스님과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만나 두 원이 앞으로 해나갈 사업등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약력〉
- 1944년 7월23일생
- 63년 통도사서 경봉대선사를 은사로 득도
- 84년 관응대강백으로부터 전강 받음
- 84~93년 직지사·통도사 승가대 강주 역임.

―교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사업을 전담할 교육원에 사부대중의 기대가 큰 만큼 모든 업무를 통괄하시게 될 원장스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종단의 흥망, 나아가 불교의 성쇠가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원 소임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45년동안 8만4천 법문이라는 깨달음을 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부대중이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믿고 바로 알아야 바른 실천이 뒤따릅니다.

불교가 사회의 향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자 개개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가르침을 전해 모든 종도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 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정혜쌍수 요익중생 정토구현을 3대 지표로 삼고 교육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교학기관 정비
### 역경사업
### 승려 재교육 강화

―종단 교육기관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행자 교육원이나 재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의 교육도량 상설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자교육원을 거치면 중앙승가대나 지방승가대 또는 기초선원에 갈 수 있습니다. 행자들중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입산한 행자의 60%가 지방승가대를 지원합니다. 고교 졸업 행자들은 중앙승가대를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런데 행자중에 경전보다는 선을 공부하겠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수를 하는 곳이 기초선원입니다. 학림, 율원, 승가대학원, 선학연수원은 전문 대학원 과정인 전문교육기관 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법계고시를 보아 주지가 된다든지 각종 소임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중앙연수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연수원은 중앙승가대가 금정사로 이전하면 그 곳을 활용하거나 서울근교의 넓은 부지가 있는 사찰을 정해 교육장으로 쓰려고 구상중입니다. 우선 오는 2월말경부터 본사주지 종단 간부등을 대상으로 승려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엔 원장스님도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지방승가대의 강주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신 것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전통승가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무엇입니까.

▲강사진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본원에서 교학연구의 체계와 발전을 위한 불학연구소,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교육위원회, 종단 교육기관의 교재 편찬 및 각종 출판물을 감수·편수하는 교재편찬위원회 불전번역을 관장하는 역경위원회등 각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오고 교육에 관심많은 스님들을 고문과 각 위원으로 모신만큼 자주 회의를 열고 논의를 가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모색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방승가대학 시설기준령을 만들어 미달되는 곳은 폐교 및 통폐합하는 등 교육의 효율을 기하고 강사·교재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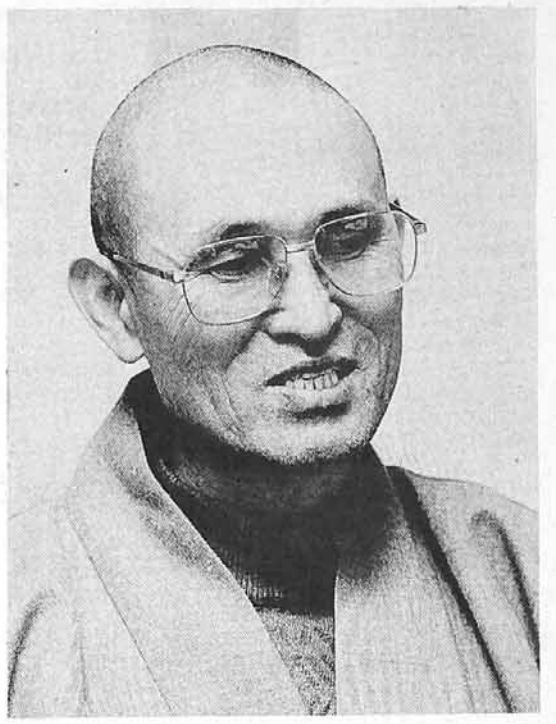
―법계제도(승가고시제) 실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확실히 체계가 잡혔을 때 법계제도가 순조롭게 실시될 것입니다. 종법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비된 점을 총무원과 오는해 곧 종령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중앙승가대 이전 재원마련등 시급히 해결할 과제도 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듯 싶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전 종도들이 동참의식을 가질 때 예산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번뇌가 깨달음의 씨앗이듯 예산문제등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진통이라 생각하고 꿋꿋하게 이겨 나가겠습니다.

〈이경숙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

<10대사업>
- 신행혁신
- 포교10년 청사진 마련
- 포교사고시 실시
- 설법교안 발행
- 신도교재 개발
- 사찰 신도회장 교육
- 문화예술인 연수
- 포교이론 연구
- 본사 포교국장 연수
- 통일법요집 편찬

〈약력〉
- 1939년 충남 천안 생
- 59년 흥복사서 전강스님 계사로 득도
- 79년 제5대 중앙종회의원
- 81년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 82~93년 포교원 상임포교사

신임원장 정락스님은 포교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달이면 보름이상을 설법차 전국을 다니는 스님은 84년 포교원 연수부장을 맡으며 포교원과 인연을 맺은 이후 줄곧 상임포교사로 일선에서 활동해 왔다.

스님은 비교적 온화한 인품으로 주위사람들을 이끌며 맡은 일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스님은 20일 조계사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금년을 '신행혁신의 해'로 선포했다. 포교를 통한 신행의 개혁을 주창한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이 총무원 산하에 있다보니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혁과정에서 교육원과 함께 별원으로 독립되어 명실상부한 삼원체제를 이루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 자체가 곧 혁신적입니다. 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 제역량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포교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교원 독립으로 많은 힘이 주어졌고 해야할 일이 더 많아 거듭 태어난다는 의미가 큽니다.

―포교원의 역할은 교계전반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포교원 별원 원년을 맞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포교의 목적은 불법을 전해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교원은 금년에 10대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포교원의 중심과제인 '신행혁신'을 위해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재적사찰갖기, 신도오계받기, 신도회가입하기, 경전읽기, 참회하기, 선행하기 등의 6대 실천덕목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마침 현대불교신문에서도 '95 신행캠페인으로 참불자운동을 펼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제114회 정기중앙종회서 포교원 예산으로 11억4천6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전반적으로 자료집 출판과 연수 교육 조사분야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먼저 자료편찬비로 2억5천4백만원, 연수교육비 1억5천9백만원, 포상비 및 해외포교지원비 4천만원, 연구실 연구비 3천1백만원, 산하단체육성지원비 3억7천만원 등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금번 포교원 예산은 연구실 연구비와 산하단체육성지원비가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포교원은 그동안 3천6백여명의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포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교원이 법사대기소라는 별칭까지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포교사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포교사들의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교도소 장애인 군법당 어린이등 특수지역에는 법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교사들을 최대한 이들 특수포교사업에 투입하여 포교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일반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교방법도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연히 미래불교를 대비해 포교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교원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10개년계획으로 포교종합청사진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포교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을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는 불법을 홍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자기수행을 하면서 포교를 담당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포교활동을 펼칠 때 앞으로의 포교는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또한 포교원은 모든 종도들이 포교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엽기자〉


불교 유통의 전문화 시대

1995. 송강 기획은?

송강 기획은 불음 보급자로서 겸허한 자세와 자부심을 견지하며 포교 불사의 원력을 키웁니다.

송강 기획은 오직 영상 및 음성 포교 자료만을 고집하며, 혼재된 불교 유통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전문 유통에 힘씁니다.

송강 기획은 양질의 포교 자료 제작에 협력하며, 제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작된 포교 자료의 신속한 보급에 정열을 바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를 따르며 한 인간으로서의 80생을 조명하고 최존하는 성지와 유적지의 종교성과 역사적 가치를 추적하여 불교의 참뜻, 삶과 죽음의 본질 등 보다 크고 거룩한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영상화한 장통 다큐멘터리.
VHS 60분×2장. 값 30,000원




경봉대선사 법어집

경봉스님의 시지였던 법정스님이 "노사의 법문을 정일하게 세 번 들으면 틴틴대로의 수행갈만 얼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성취하여 대오철저한 분위은 사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권하신 경봉큰스님의 육성법문.
C60×10개입. 해제 책 1권 친필 인화본 1매. 값 50,000원




산사의 향기

1,600년 한민족 불교 문화의 집은 향기가 감돌는 영상 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과 빼어난 영상으로 어울어진 한편의 감동시. '94 대한민국 영상 음반 대상 골든 비디오 대상 골든 비디오 감독상 수상작.
VHS 50분×1장. 값 20,000원

사원 모집

경리직 : 여 1명 (경력1~2년)
전화 상담직 : 여 1명 (경력 무관)

공통 사항 : 불자에 한함
제출 서류 : 자기 소개서 및 이력서 1통 (응시 분야 명기 요)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 통보
전화 상담직은 실적급 임(식대 및 교통비 지급)

연락처 : 02) 745-6015/7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가 69번지 2F

##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12)

若欲不負出家志 須向名山嗽妙旨
약욕불부출가지인댄 수향명산궁묘지하되
一衣一鉢 絶人情 飢飡 無心道自高
일의일발로 절인정하면 기포에 무심도자고니라
頌曰 爲他爲己雖微善 皆是輪廻生死因
송왈, 위타위기수미선이나 개시윤회생사인이라
願入松風蘿月下 長觀無漏聖師神
원입송풍라월하하여 장관무루조사선이어다

만약 출가한 뜻 등지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명산을 찾아가(고요한 자리를 잡아서) 묘의를 궁구하되 옷 한벌 바리때 하나로 인정끊고 주리고 배부름에 마음두지 않으면(먹거리 걱정에 걸리지 않으면) 도는 저로 높아지리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남 위하고 저 위하는 것 비록 작은 선이나 이것이 다 생사윤회의 원인이라

원컨대 솔 밭 흰넝쿨 숲 닫 빛 아래 망상 여읜 조사의 마음자리 오래 관할지어다.

其九 勿說他人過失
기구는 물설타인과실하라
雖行善惡 心無動念
수문선악이나 심무동념이니
無德而被讚 實吾慙愧
무덕이피찬은 실오참괴요
有咎而蒙褒 誠我欣然
유구이몽훼는 성아흔연이니라
欣然則知過必改 慙愧則進道無怠
흔연즉 지과필개요 참괴즉진도무태니라

## 어떤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말라
## 마음이 평등하면 취하고 버릴 것도 없어

勿說他人過 終歸必損身
물설타인과하라 종귀필손신이니라

아홉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비록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듣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니

덕이 없는데 칭찬 받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허물있어 헐뜯는 소리 듣게 됨을 진실로 기뻐할 일이라

흔연히 받아들인 즉 허물알아 반드시 고치고 부끄러워 하는 즉 도 닦는데 게으르지 않으리라

남의 허물 입에 올리지 말라 마침내 되돌아와 반드시 내 몸 손상케 한다.

若聞他人言 如毁父母聲
약문해인언커든 여훼부모성하라
今朝 雖說他人過 異日 回頭論我咎
금조에 수설타인과나 이일에 회두논아구니
雖然 凡所有相 皆是虛妄
수연이나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譏毁讚譽 何憂何喜
기훼찬예에 하우하희리요
頌曰, 終朝談說人長短 竟夜昏沈懶睡眠
송왈. 종조란설인장단타가 경야혼침라수면이로다
如此出家徒受施 必於三界出頭難
여차출가도수시니 필어삼계출두난하리라

만약 남을 해치는 말 듣거든 마치 부모 헐뜯는 소리라 하라

오늘 아침 비록 남의 허물 입에 올리나 다른 날 되풀아 내 허물 거론하는 말 듣게 되리라

비록 그러하나 무릇 모든 형상이란 다 실체가 따로 없는 것이니,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함에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하랴

게송으로 말하노라

아침부터 하루종일 남의 잘 잘못이나 떠벌이다가 밤새도록 흐릿하여 잠이나 즐기누나. 이같은 출가 헛되이 보시나 축내는 것이라

참으로 삼계 윤회 벗어나기 어렵도다.

其十 居衆中 心常平等
(기십은 거중중하여 심상평등하라)
對愛僻親 法界平等 若有親疎 心不平等
(함애사친은 법계평등이니 약유친소면 심불평등이라)
雖復出家 何德之有
(수부출가나 하덕지유리오)
心中 若無憎愛之取捨 身上 那有苦樂之盛衰
(심중에 약무증애지취사면 신상에 나유고락지성쇠리오)
平等性中 無彼此 大圓鏡上 絶親疎
(평등성중에 무피차하고 대원경상에 절친소니라)
三途出沒 憎愛所纏 六道昇降 親疎業縛
(삼도출몰은 증애소전이요 육도승강은 친소업박이니라)

열째, 대중 가운데 머물어도 마음은 항상 평등 (평상심)할 지어다.

사랑 버리고 어버이 떠난 것은 법계 평등 그것이라(법계가 본래 평등함을 아는 실천인데) 만약 친밀하고 소원함(성김)이 있다면 마음으로 평등치 못한 것이라.

비록 다시 출가하나 무슨 덕이 있으리오 마음 가운데 만약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취하고 버림이 없다면 몸에 어찌 괴로움과 즐거움의 성하고 쇠함이 있으리오.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너와 나가 따로 없고, 둥글고 큰 지혜의 자리엔 가깝고 멀고가 끊어졌나니(뚜렷이 밝은 마음자리엔 너·나의 차별없어 둘 아니게 평등하고 여여하나니)

삼악도를 드나 듦은(마음이) 미움과 사랑에 얽힌 바(까닭)요 육도를 오르 내림은 친소 차별 업에 묶인 탓이다.

契心平等 本無取捨 若無取捨 生死何有
(계심평등하면 본무취사니 약무취사면 생사하유리요)
頌曰, 欲成無上菩提道 也要常懷平等心
(송왈, 욕성무상보리도인댄 야요상회평등심이어다)
若有親疎憎愛計 道加遠兮業加深
(약유친소증애계면 도가원혜업가심하리라)

마음 평등한 자리에 계합하면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나니 만약 취하고 버림이 없다면 생사가 어찌 있으리요.

게송으로 말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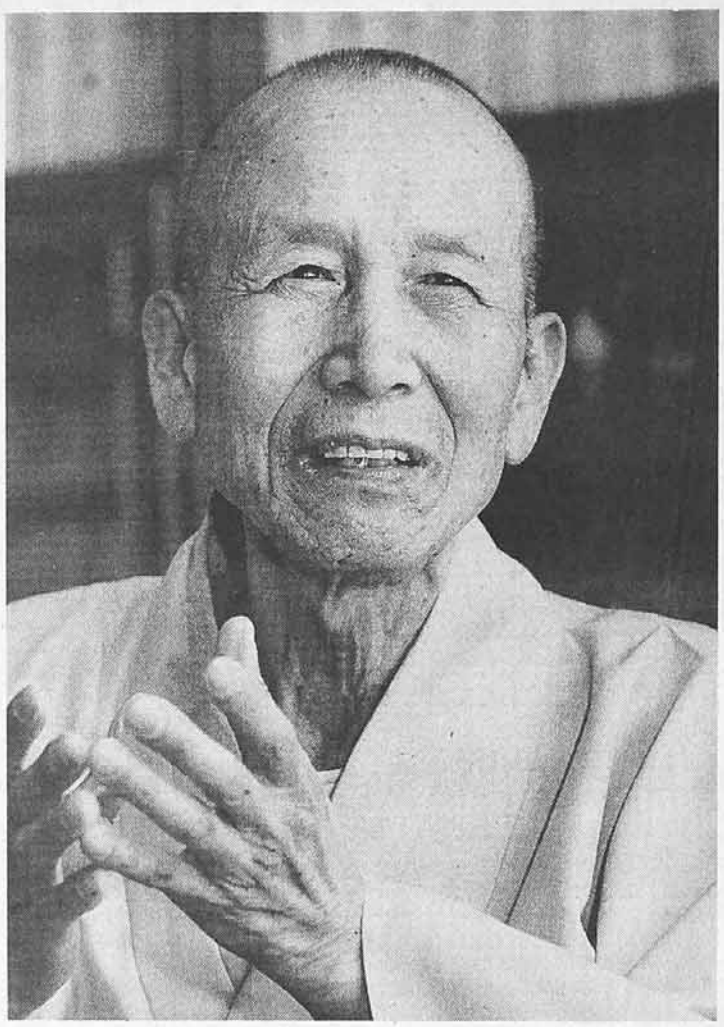
위 없는 보리도 이루려거든 평등심 언제나 지녀 가짐 요긴하니 만약 친소 애증 따진다면 도는 더욱 멀어 짐이여, 업은 더욱 깊으리라.

龍眼

## 지상 법석

# 과학 문명은 '욕망'의 산물

**서옹스님** <백양사 조실>



이 지상의 중생이 무명에 허덕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영원불변의 진리와 참사람의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자대비한 인간본성의 일깨우심이었고 어둠 속에 광명을 밝히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인간의 길을 성취하시고 일생을 바쳐 가르치신 분입니다. 생명을 가진 중생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생로병사의 실상을 깨달으시고, 이를 초월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참사람으로서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되풀이되며, 참사람의 본바탕인 동체대비를 증득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무명의 행업이 거듭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 나만의 자유는 방종

참된 인간사회 실현은 가치있는 모든 일에 앞서서 부처님의 혜명을 받드는데 있으며, 이를 개인 생활에서, 집단과 국가 인류 사회에서 창조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인간이 당면한 반인간적인 비극의 실상, 즉 분열과 갈등, 침략과 전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모순의 극복을 우리가 참으로 서원한다면 생에의 집착, 사의 허무를 초극해야 합니다. 또한 이성과 반이성의 대립을 넘어서 참사람으로서 평등과 자유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는 과학문명의 극대화로 이른바 생활의 과학화라는 성과를 획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과학문명이라는 물질적 욕망의 산물인 기계와 조직의 노예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과학문명사회에서는 인간소외의 비탄이 높아가고, 낙후 사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인간화의 괭배로 그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은 이성적 세계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에 냉철한 이성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입장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이성적인 대립관계가 비례적으로 상승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학문명의 내적 구조는 절대적인 이성이 지배하지 못하고 절대모순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한 생명도 절대영생이 아니라, 생·노·병·사라는 필연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모순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모순에 봉착한 이성적 인간이 그 밑바닥을 타파하여 생사가 없고 자유자재한 참사람을 자각할 때에 오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 세계는 그 이념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평화와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일면 인간본위의 도덕적 가치가 존중되면서도 다양성 속의 무책임한 자기 발산과 나 하나만의 이기적인 사고, 나 하나만의 방종한 자유의 주장으로 내적 갈등과 분열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자유의 실현은 인간의 본질적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우리 불교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원융(圓融)정신에 입각한 불편불의(不偏不倚)한 대동적 사상이라야 합니다.

나 하나만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이웃과 사회, 국가와 전인류적인 차원의 자유와 결부될 때만이 참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부의 축적만을 꾀하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만의 안전과 복락만을 도모하는 자기 일변도의 모순은 없습니까? 전체가 파국에 직면할 때 나 하나의 부도, 안전과 복락도 결코 지탱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처마음' 개발하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이며 탐욕적인 자기 모순을 대담하게 탈피, 참사람을 실현하려고 참회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된 사람의 동체대비를 실현하여 남을 이롭게 할 때 자기도 이롭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사상을 모든 생활에서 실천합시다. '참 나'는 이웃과 일체이며, 국가사회와 일체이며, 전인류와 일체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며 일체이기 때문에 총화가 언제나 오늘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적 구조상, 첫째 그 밑바닥에는 감각과 욕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 욕망이 없어서는 또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임과 동시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량없이 불안하게 허덕이게 되고 또한 욕망에 끄달리면 자기의 올바른 정신이 없게 되고, 그것의 노예가 돼서 참 자유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질서도 없고, 폭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살고 이성을 각성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개방된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면 당연히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며, 그 결과 이와 같이 과학문명을 창조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성이 옳다, 그르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것을 가지고 학문도 연구하고 과학문명을 건설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경적으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착하다, 악하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러한 대립분열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불안하고 절대 절망·불안·절대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 위에 이성이 있고 이성을 개발해서 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원만하게 잘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그 바탕에는 부처님 마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무아의 경지, 절대의 경지, 영원의 생명체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서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도와서 어디든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우리 인간 근본 바탕이 이 부처마음, 이것을 개발해서 살면 우리는 훌


##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2月/2, 7, 9, 14, 16, 21, 23, 28 3月/2, 7, 9, 14, 16, 21, 23, 28, 30

| | |
|---|---|
| 대만 5日 ₩595,000 |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br>2月/1, 8, 15, 22 3月/1, 8, 15, 22, 29 |
| 스리랑카 6日 ₩1,070,000 |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br>2月/3, 10, 17, 24 3月/3, 10, 17, 24, 31 |
| 미얀마·태국 8日 ₩1,400,000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쿄구-양곤(1박)-방콕(2박)-서울<br>2月/3, 10, 17, 24 3月/3, 10, 17, 24, 31 |

##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 | |
|---|---|
| 방콕·파타야 5日 ₩685,000 |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br>2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715,000)<br>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
| 방콕·푸켓 5日 ₩795,000 |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br>2月/2, 4, 5, 9, 11, 12, 16, 18, 19, 23, 25, 26<br>3月/4, 11, 18, 25 (₩725,000) |
| 동남아 3국 5日 ₩745,000 | 서울-싱가폴(4박)-바탐·조호바루-서울<br>2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br>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
| 방콕·푸켓·싱가폴 6日 ₩895,000 |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br>2月/2, 7, 9, 14, 16, 21, 23, 28<br>3月/7, 14, 21, 28 (₩795,000) |
| 하와이 5日 ₩679,000(일급) ₩765,000(특급) |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br>2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br>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
| 미국 서부 버스 7日 ₩799,000 | 서울-LA(1박)-그랜드캡(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br>2月/3, 6, 10, 13, 17, 20, 24, 27 3月/6, 13, 20, 27 |
|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br>2月/2, 9, 16, 23<br>3月/2, 9, 16, 23, 30 |
| 사이판 4日 ₩735,000 | 서울-사이판(3박)-서울<br>2月/2, 3, 5, 9, 10, 12, 16, 17, 19, 23, 24, 26<br>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
| 괌 4日 ₩735,000 | 서울-괌(3박)-서울<br>2月/2, 9, 12, 16, 23, 26<br>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
| 호주·뉴질랜드 8日 ₩1,745,000 |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br>2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3, 25, 26, 27, 28<br>3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

##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 **방콕·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 **푸켓** 5日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 **대만(화련)** 4日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 **괌** 4日 — ₩670,000 / 5日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 **사이판** 4日 — ₩670,000 / 5日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 **하와이** 5日 — ₩790,000(일급) / ₩890,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 **호주** 5日 — ₩1,109,000 / 6日 — ₩1,14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 지상 법석

# '참사람' 자각할때 모순해결

**이 세대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면 그 부처 마음자리가 이성을 지배하고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으로 작용해서 감각이 되는 인격이 원만한 인격인 동시에 과학문명도 부처 마음자리 바탕의 원리에서 새로 창조하여, 일체 인류를 부처님으로 존경해서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문명을 이룩한 동기가 첫째 '대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자. 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해서 우리 인간이 이용하자' 이러한 못된 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대자연을 정복하자는 것은 하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문명 자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이성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욕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면 그 부처 마음자리가 이성을 지배하고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으로 작용해서 감각이 되는 인격이 원만한 인격인 동시에 과학문명도 부처 마음자리 바탕의 원리에서 새로 창조하여, 우리 인간이 서로서로 그 부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이 자기도 부처님인 동시에 일체 인류를 부처님으로 존경해서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기로 돌아가자는 세계 역사의 역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문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떠한 것이냐, 할 때에 과학문명과 그 이성과 모순이 안 되면서 과학문명을 초월해서 과학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주적·자율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라야 이 과학문명의 막힌 벽을 타개해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불교야말로 철학적이며 과학을 초월한 것으로 인간 속에서 자기 참모습을 개발한 종교인만큼 자주적·자율적·자유로이 살면서 어디든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가 우리 불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과학문명을 밑받침하고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거나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신도들의 마음자세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적 가치를 말하자면,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훌륭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는 감성만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참이다, 거짓이다, 착하다, 악하다고 비판하는 이성적 가치까지도 초월한 근본원리라야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역사적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도 단순히 감성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해결하는 데에 감성적 가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오늘날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성적 또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인생 문제라든가 세계의 깊은 문제는 이성까지 초월한 부처 마음자리, 인간 우주의 근본 생명체를 깨닫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 참 모습이 말하자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자면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다운 부처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말씀하기를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음성이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 인류는 둘 아닌 한몸

그러나 더욱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처 마음자리로 돌아가면 부처 마음자리는 전부 우주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등상불을 모신 것이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진리 입장에서의 등상불은 오히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도 초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거일동은 이 불가사의한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내는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조그마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무한의 부처 마음자리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말씀하기를 '애들이 장난으로 흙덩이로 부처님을 조성한다거나 모래로 부처님 탑을 쌓는다거나 또는 법당에서 한번 합장한다거나 나무불 하더라도 이미 성불을 마쳤느니라' 이와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지어서 성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성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벌써 지어있고 벌써 성불해 있어서 다 구제가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모습 바탕에서 우리인류는 평등하고 또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것입니다.

## 대립분열·폭력·무질서 이기적 탐욕에서 비롯
# 걸림없는 동체대비 실천만이 잘 살 수 있는 길

망이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개발하고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과학문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문명으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욕망이 과학기술과 이성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만한 인격자라고 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부처 마음자리의 작용으로써 감각과 욕망이 작용해야 원만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오늘날 과학문명은 욕망이 과학적 기술과 이성을 이용합니다. 산업사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만 개발하고 건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이라는 것은 욕망이 아닙니까? 이와같이 오늘날 문명은 욕망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서로서로 해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인심이 험악해져서, 이와같이 계속 과학문명을 욕망으로 약용한다고 하면 인류는 결국 파멸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 새 역사 창조하는 원리

오늘날 과학문명은 더더욱 발전시켜야 하지만 과학문명만으로는 도저히 인류가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위기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과학문명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벽을 타개하는데는 융통한 종교의 근원적 원리가 밑바침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과학 지성과 모순이 된다거나 절대 복종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저 중세기가 아닌 현실에서는 통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과 모순이 되는 종교를 절대 복종하고 절대 의지해서 타율적으로 복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 중세기로 돌아가자는 세계 역사의 역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문명을 밑받침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떠한 것이냐, 할 때에 과학문명과 그 이성과 모순이 안 되면서 과학문명을 초월해서 과학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주적·자율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라야 이 과학문명의 막힌 벽을 타개해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불교야말로 철학적이며 과학을 초월한 것으로 인간 속에서 자기 참모습을 개발한 종교인만큼 자주적·자율적·자유로이 살면서 어디든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가 우리 불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과학문명을 밑받침하고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거나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신도들의 마음자세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적 가치를 말하자면,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훌륭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는 감성만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참이다, 거짓이다, 착하다, 악하다고 비판하는 이성적 가치까지도 초월한 근본원리라야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역사적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도 단순히 감성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해결하는 데에 감성적 가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오늘날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성적 또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인생 문제라든가 세계의 깊은 문제는 이성까지 초월한 부처 마음자리, 인간 우주의 근본 생명체를 깨닫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 참 모습이 말하자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자면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다운 부처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말씀하기를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음성이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 인류는 둘 아닌 한몸

그러나 더욱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처 마음자리로 돌아가면 부처 마음자리는 전부 우주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등상불을 모신 것이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진리 입장에서의 등상불은 오히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도 초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거일동은 이 불가사의한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내는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조그마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무한의 부처 마음자리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말씀하기를 '애들이 장난으로 흙덩이로 부처님을 조성한다거나 모래로 부처님 탑을 쌓는다거나 또는 법당에서 한번 합장한다거나 나무불 하더라도 이미 성불을 마쳤느니라' 이와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지어서 성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성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벌써 지어있고 벌써 성불해 있어서 다 구제가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모습 바탕에서 우리인류는 평등하고 또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비심이 나와서 우리는 자비·화합 바탕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분열·대립·알력을 해결하는데 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이 아닙니까.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역사라고 되어있는데 그와같은 사상과 행동으로 나가면 인류가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위기가 전쟁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상 가지고는 인류의 파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대립을 화합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민족도 평화통일 할 수가 있고 세계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이 인간상인 것이며, 인간의 참다운 실존이 바로 부처님이지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⑫

## 상대론과 연기론 (Ⅱ)

김 성 규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론'은 '연기론'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상대론'이라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의 인식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가 '연기론'인 것이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 먼저 귀납법은 특수한 몇 개의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법칙이 성립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다윈도 죽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다윈도 아인슈타인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연역법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다'라는 논리전개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론과 연기론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적인 세계와 마음의 세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등 보이는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관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서양을 몰랐다고 서양이 없었던 것이 아니듯이 모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를 모른다고 마음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육신의 껍질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그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것이다. 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그대의 마음인데 슬픈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육신에 전해져 육신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다.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내용이 원인이 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맛있던 밥맛이 싹 달아날 것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일은 마음이 하지만 그 영향은 바로 육신을 통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는 이 육신을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 그릇의 모양대로 물의 형태가 이루어지듯이 마음의 상태대로 이 육신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납적으로 마음을 담고있는 그릇인 육신에 맞는 이론은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맞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인식에 대한 '연기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것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태어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고, 남녀의 만남에 의한 애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집착이 생기게 된다. 태어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또한 없으며, 올바른 관찰과 청정한 수행에 의하여 애욕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집착 또한 멸하게 된다. 부처님 당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실성하게 된 한 어머니가 자식을 살려달라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성중에 들어가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의 소금을 얻어오면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정신이 없는 그 여인은 당장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집집마다 소금을 얻으러 다녔다. 온 성을 다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죽음이 자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자는 언젠가는 죽기마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도 백 년 후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진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돈과 권력에 집착하여 진리를 바로 보지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고있다.

앞에서 상대론과 연기론(I)에서 언급한 물질의 세계에 대하여 '상대론'이 진리이듯이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연기론'은 진리인 것이다. 모든 물체의 운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상대적으로 바르게 파악한다면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인식에 대해서도 자연히 연기적으로 바르게 인식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화두에 대한 정답이 '상대론'이라면, 붓다의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하는 화두에 대한 정답이 '연기론'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물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형태가 이뤄지듯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육신도 형성된다.**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교계 최고의 강사진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 | | | | | | |
|---|---|---|---|---|---|---|
| 1학년 | 1학기 | 불교학개론 | 신종사상 | 한국불교사 | 인도불교사 | 불전개설 |
| | 2학기 | 불교입문 | 화엄사상 | 밀교사상 | 법화사상 | 정토사상 |
| 2학년 | 1학기 | 의식이론 | 반야사상 | 포교방법론 | 불교미술 | 유식철학 |
| | 2학기 | 의식실수 | 불교상담학 | 불교복지론 | 종교학개론 | 원전강독Ⅱ |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FAX :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1995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 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 집 안 내

1. 모집학부 :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 출강 ○○명, 통신 ○○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02)720-1836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국제포교에 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
·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韓國佛教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02)720-1836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수미산 13

## 두사람의 여행

언제 파도에 휩쓸려 죽을 고비를 넘겼던가 싶도록 우녀는 여느 때의 나날로 돌아왔다. 그것은 아기를 낳을때의 그 모진 진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서 아기의 배냇짓에 빠져드는 어미의 기쁨과도 같은 것인가.

인담이 이런 우녀를 예성강과 제물포 사이의 왕복선 선장으로부터 넘겨받을 때 "소승이 저 남자를 신령스럽게 만들 작정입니다."라고 말한 바는 이제 실현되었다.

딱히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히 가르친 적도 없다. 그저 눈치있는 짐승이 며칠사이에 다른 짐승의 세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는 것처럼 우녀의 타고난 기운이 이 섬의 수행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이 섬에 건너 온 이래 인담은 오래동안 차(茶)를 잊어야 하였다. 이곳에 건너오기 전의 몇군데 절에서는 차공양에 제법 인이 박혔던 것이다. 그런 인담이 우녀의 경지를 "진향(眞香)의 경지인가"라고 크게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차는 겉과 속이 한결같은 순향(純香), 설익지 않고 지나치게 익어버리지도 않는 청향(淸香), 불기운이 고르게 가해진 차를 난향(蘭香)이라 하였다. 여기에다 곡우 무렵 이전에 따서 만든 차의 향기를 진향(眞香)이라 하였다.

차의 향기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 사향(四香)의 경지에 이르고자 할진대 실로 차 1만잔은 맛보아야 하리라.

우녀를 진향의 경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담인지라 그도 우녀와의 관계가 무척 걱정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우행자는 신령스러웠지… 내가 신령스럽게 만들겠다고 한 것은 군더더기였지…."

인담은 그 자신만으로 무욕도 수행을 할 때보다 한창 무르익어가는 젊은 여자와의 수행이 더 어려운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녀가 그보다 더 수행의 농도가 더 진한 것을 차츰 짐작하게 되었다.

혼자 살 때의 무방비적인 편안함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우녀는 인담이 따라잡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마 그녀가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인담이 헤엄쳐서 당장 구조할 수 없게 된 사실 조차도 이런 수행을 뜻하는 것인지 모른다.

어느덧 두 사람의 동거는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섬에 건너 올 때마다 어리굴 개펄의 썰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개펄에서 우녀가 엉엉 울었을 때와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

"스님!"

우녀가 무엇인가를 다짐 받으려는 듯이 인담을 숙연하게 불렀다.

"…우행자가 나를 불렀소?"

인담의 이같은 반문에는 끄덕하지 않고 다시 "스님!"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

"스님! 예성강 전포나루 선장한테 빚이 있지요?"

그때서야 인담이 1년전의 일을 떠올렸다.

"중은 잊어 버리는 짐승인 모양이오. 그래요. 제물포 객주에 내가 갚을 2백냥의 빚이 있지요."

"스님에게 그런 돈이 있어요?"

"있다면 있게 되고 없다면 없고…."

"벌써 속임수입니다. 스님."

**"제물포 객주에 가서 제 몸값 2백량을 내주기로 약조하셨지요?"**
**"그렇지. 그러니 간다면 내가 가야지."**

"속임수라… 그럴수도 있겠지요."

우녀가 장난삼아 떠올린 일은 어느덧 진담이 되었다.

방선 뒤의 몸은 괜히 긁적대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절안에 긁을 수 있는 흉(笋)이 있지 않았던가.

우녀가 추운 날씨의 바깥으로 나갔다.

"며칠전 죽을뻔 했을 때 파도 덩어리가 갑자기 팽팽해지는 것을 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올라 타다가 더욱 깊이 잠긴 적이 있었어요. 문득 그 경황 중에도 전포나루에서 2백량 짜리로 넘겨졌을 때 처음으로 만난 서해 연안 왕복선 선장의 인상이 떠올랐어요. 그 선장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사람이 저를 스님께 넘겨주고 말았어요."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오?"

"후회하다니오? 군산포까지 갔더라면 그곳 신들린 영감한테 가서 선무당 아니면 왼무당이 되어 세상을 속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어도 세상 속이기는 누워서 잠자기이지."

"하기는 이 무욕도 수행이란 내가 나를 속이기 안성맞춤입니다.… 스님!"

하고 그녀가 진지한 머루빛 눈빛을 뜨겁게 빛냈다.

"다녀오겠습니다. 제물포 객주에…."

"어디에?"

"제물포 객주에가서 제 몸값 2백량을 내주기로 약조하셨지요? 스님이"

"그렇지. 그러니 간다면 내가 가야지."

"아닙니다. 스님에게 돈 2백냥이 어디 있습니까?"

"나야 물으로 거너가 이리저리 떠도는 가운데 그런 엽전꾸러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탁발(托鉢)하시겠다는 말씀이시요?"

"기왕에 머물렀던 사암(寺庵)에 가면 거기에는 한두 사람쯤 엽전만 모으는 노승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입실(入室 — 제자로 들어감)이라도 하면 어디 2백냥 뿐이겠는가. 개심사(開心寺) 노승은 대웅전 뒤칸을 파고 엽전 항아리를 두개나 묻어두었다 하니까."

"안됩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제 몸값이야 제 몸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시겠다는 것인지?"

"두고 보세요. 정 안되면 선장도 객주에 잔뜩 빚을 지고 있을 것이오. 요즘 객주라는 곳이 너절한 짓거리로는 보부상들의 등을 쳐먹고 크게는 세곡선(稅穀船) 선장들조차도 단단히 빚더미를 앵겨 바다 위에 띄워 둔 셈이라."

"우행자가 어찌 그런 일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오."

"이 무욕도에는 신선 하나와 갈매기 뿐이군요. 저는 신선이나 속이는 계집입니다. 호오"

그때였다. 인담이 이마에 땀이 배어나오며 그녀의 난만한 몸을 껴안아버렸다.

"우행자"

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인담과 우녀의 나이 차이 20여세였으나 우녀쪽의 가슴에 방망이질이 시작되었다.

"내가 갔다 오겠소."라고 인담의 입에서 말이 나온 것은 훨씬 뒤였다.

여자의 몸은 이제 누군가가 버티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처럼 뼈의 역할이 없어져 있었다. 눈을 지긋이 감고 있었고 입술은 더욱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기어코 한마디 나와야 하였다.

"함께 갔다 와요.… 앞으로 함께 갈 곳이 어디 제물포 뿐이겠습니까? 함께 가요."라고 말하며 인담의 몸을 천천히 떼어놓았다.

이로부터 인담은 우녀의 영향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나날이 우녀의 관능과 기품은 무거워졌으며 그렇게도 표표한 무애로 살아온 인담이 그의 나이와도 상관없이 한갓 여자에게 귀의하고 있었다.

우녀는 그녀가 계룡산 마곡사나 동학사에서 내전(內典)공부라도 한 것처럼 그녀가 읽어 본 적이 없는 〈비유경(譬喩經)〉의 소 이야기를 꺼냈다.

"스님. 옛날에 한 남정네가 돈놀이를 했답니다. 어떤 두사람이 그 남정네한테 돈 1만냥을 꾸어쓰고 기한이 되어서 갚았다 합니다. 뒷날 두사람은 다시 모의하기를 각각 10만냥을 꾸어쓰고 그것을 갚지 말기로 하자고 했답니다."

"…."

"…그런데 두사람 저쪽 말뚝에 매어있는 소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주인께 돈1천냥을 빚지고 갚지 않은 업보로 세번이나 소가 되어서도 아직 소 노릇을 다마치지 못했거늘 하물며 당신들은 10만냥씩이나 떼어먹으려 하니 그 죄업이야말로 마칠 때가 없겠소그려'라고… 두사람은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중에 돈놀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 사람은 소를 풀어주며 '이 소는 지금으로부터 다시는 소의 몸을 받지 말게 하소서. 만약 빚진 것이 남았다면 뒷날 그값만큼 다른 이에게 보시(布施)하게 하소서.' 라고 축원까지 해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 인간세상에 태어났습니까?"라고 인담이 물었다.

"아무렴 태어나고 말구요… 우리 돈 2백량을 갚으러 제물포로 갑시다."

"…."

이제 인담으로서는 그녀가 하자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무능 가운데서 기왕의 인담이 우녀가 되고 그 우녀가 인담으로 바뀌어진 터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뒤 그들에게는 다시 며칠이 삭도(削刀) 칼날에 썸뻑 손끝을 베어 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썸뻑지나가버린 것이다.

새벽예불과 식전 좌선을 마치고 나서 인담이 아침공양의 죽을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우녀가 제지하였다.

며칠전부터 인담이 부엌일도 맡게 되었다. 우녀는 인담이 자청하는 일을 굳이 만류하지 않았다.

"오늘은 죽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썰물때를 맞춰 배를 저어야 조금이라도 쉽게 어리굴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밤에 잠들기 전의 우녀 발까지 더운 물로 씻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인담인지라 우행자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겠지요."라고 호응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해서 두사람의 제물포행이 있게 되었다. 배가 낡아서 몇번 타고 나면 그대로 버려야 할 형편이었다. 벌써 노의 쇠구멍이 거덜나서 조심스레 노 젓는데도 매우 불편하였다.

인담은 은연중 우녀에게 어떤 방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배를 바꾸는 일도 그렇거니와 제물포 객주에게 주어야 할 2백냥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이다.

"며칠전 스님께서 포용한 그 힘으로 우리는 몇백리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스님의 애욕은 보살의 서원(誓願)과 같아 그 힘은 오래갑니다."

그들은 마치 무욕도에서 첫나들이인 것처럼 어느 만큼 가슴 설레이면서 배를 매어둔 곳으로 갔다. 웬만한 날씨로는 그 후미져 있는 바위 골짜기의 물은 파도의 여파(餘波)밖에는 넘보지 않게 고요하였다. 그곳에서 배는 무작정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 낡은 배는 물에 떠있는 그 기다림 자체가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전 스님께서 포용한 그 힘으로 우리는 몇백리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스님의 애욕은 보살의 서원과 같으니까요."**



그림 · 최규일


#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 한마음 요전

###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년의 치열한 구도 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 자유인의 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는 만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라는 이름도,
중생이라는 이름도 모두 녹아든 자리입니다.
如如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바로
당신의 마음자리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과 함께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 생활 속의 불법

大行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이 곧 불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네 마음이 화두요
네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大行스님 법어 중에서)




**줄탁(啐啄)** :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새는 그때를 알고 부리로 알을 쪼아줍니다. 「한마음 요전」은 바로 어미새의 부리 같은 것입니다.

### 여벌의 삶은 없어도 다시 태어나는 삶은 있습니다.

• 불법의 진리 속에 다시 태어 나십시오.

"業으로 자신의 운명을 옭아 매려 하지 마라.
業이란 녹음 테이프와 같은 것
새 것을 입력하면 옛 것은 지워진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 · 독경을
착실히 한다 해서 생활 불교는 아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근본인 불성을 굳게 믿어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세계의 참 주인으로서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른 생활 불교다."

(大行스님 법어 중에서)

**■ 서점에 있습니다.**

• 서울 : 교보문고·영풍문고·종로서적·을지서적·서울문고(무역센터)·동화서적·월드북센터(신사역)·영등포문고·홍익문고·신촌문고·한가람문고·태평서적센터·세종문고(잠실 롯데백화점)·두레문고(노원역)·불교방송 구내서점·운주사 外 서울시내 불교서적 전문서점
• 전국 주요도시 불교서적 전문서점

• 기획 · 편집 : 한마음 선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62
전화 : (0343) 72-3100, 1512

• 제작 · 공급 : 도서출판 如是我聞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전화: (02) 737 - 8881

**「한마음 요전」에는 대행스님의 중생에 대한 사랑이 처절하리 만큼 짙게 배어 있습니다.**

#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스님 '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하

## "일상 인연처에서 살피고 살펴라"

### 도인은 화두·반조 차별상 없이 참구할 뿐

여기에서 말한 '일귀하처(一歸何處)'는 화두(話頭)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을 보라'는 것이 반조(返照)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고봉은 이미 '일귀하처'에서 굳건히 정(定)을 잡고 주인이 되었는데, 설암스님은 무엇 때문에 힐책하여 다시 '일각주인공'을 보도록 하였을까?

이는 특별히 화두를 보는 가운데 철저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준 것이니, 과연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열등하며, 무엇이 원만하고, 무엇이 편벽하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깨달음이 철저하고 못함이 사람의 진실과 허위, 구경(究竟)을 얻었느냐와 못 얻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방편의 우열(優劣)과 심천(深淺)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삼가 불조(佛祖)의 정법(正法)상에서 부질없이 이견(二見)을 내어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종고(宗杲*)[23] 선사가 영시랑(榮侍郞)에게 보내는 답서에 이르기를,

"다만 일상생활의 인연이 있는 곳에서 무시로 살피되, 내가 타인과 더불어 명쾌히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끊어버림은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것이며, 필경 어느 곳에서 유출되었는가를 살피고 살핀다면 평소 생소한 곳이 스스로 익숙해질 것이니, 생소한 곳이 익숙하여지면 익숙한 곳은 도리어 생소하게 될 것이다. 어느 곳이 익숙한 곳인가. 5음(五陰), 6입(六入),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 25유(二十五有),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사량계교(思量計較)하는 심식(心識)이 밤낮으로 아지랑이처럼 번뜩여서 잠시도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하나의 끄나풀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사에 유랑케 하며 모든 고통을 만들어 내지만, 이 하나의 끄나풀이 이미 생겨나면 보리열반과 진여불성이 문득 현전(現前)하게 될 것이다. 현전(現前)한 때에 이르러서는 또한 현전(現前)한 사량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서 말하기를,

"눈에 응한 때에는 일천 개의 태양이 비춤과 같아서 만상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귀에 응한 때에는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가 족히 응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데에서 구하지 않고 다른 힘을 빌리지 않은 것이다. 자연히 인연에 응할 때에 활발하고 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음을 얻지 못한다면, 또한 세간의 속된 일을 사량(思量)하는 마음으로, 사량이 미치지 못한 곳을 돌이켜서 사량하여 보아라. 어느 곳이 사량이 미치지 못한 곳인가.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물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스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 하나의 글자에 어떠한 기량이 있는 것일까? 청컨대 안배하여 헤아려 보도록 하라. 계교와 안배를 놓아 둘 곳이 없을 것이니, 다만 뱃속에서 번민하며 마음에서 번뇌할 때가 바로 좋은 시절이어서 제8식(第八識)[24]이 서로 차례로 행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깨달은 때에는 놓아 버리지 말고 다만 '무자(無字)'를 들어야 한다. 이를 들어오고 이를 들어가면, 생소한 곳은 스스로 익숙하고 익숙한 곳은 스스로 생소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일용 인연처에서 살피고 살피는 것이 반조가 아니겠는가. 사량진로(思量塵勞)의 마음을 가지고서 '무자(無字)'상으로 돌아가 이를 들어서 놓지 않는 것이 화두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종고선사 또한 사람들에게 반조하는 법을 가르쳤고, 겸하여 화두 드는 법의 대략을 보여주었으니, 다만 그 법의 대략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보리열반과 진묘여불성(眞妙如佛性)이 문득 분명하게 드러나서 스스로 생소한 곳은 스스로 익숙하여지고 익숙한 곳은 스스로 생소하여진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살펴 본다면, 화두를 드는 것과 반조하는 두 가지의 공부에서 그 효험을 얻음이 어찌 깊고 얕음이 있겠는가. 옛 사람이 이와 같이 가르쳐 준 기연을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 말할 수는 없으나 모두 반조와 간화(看話)로써 차별상을 가지지 않았거늘, 오늘 나의 학인들이 서로가 공격하여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이 처럼 배워 왔는가.

혹자는 본분화두에 따라서 여법(如法)히 참구하다가, 조금 쉬어진 곳이 있으면 곧 만족하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조금이로(理路)를 섭렵해 보았다하면 곧 이를 쓸어버리고자 하여 발자취를 없애니, 이는 불조(佛祖)의 가르침 가운데 무한한 방편이 모두 의리(義理)에서 나와서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큰 방편을 삼은 줄 알지 못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냉담무위(冷淡無爲)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꼼짝도 하지 못한 자이다.

혹자는 반조의 법문으로써 여실히 참구하다가, 조금이라도 응집된 기미가 있으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여 다시금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특한 생각을 가져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도리를 말하고 지견을 나타내니, 이는 납승가(納僧家)의 본분정령(本分正令)이 부처를 삼고 조사를 삼으며,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쳐 거듭거듭 모조리 명근(命根)을 끊어버리는 참수단인 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사람은 문호(門戶)의 빛과 그림자를 잘못 알아서 여실히 보고 여실히 행하며 여실히 작용하여 생을 벗어나 죽음으로 들어감에 큰 자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오로지 모든 생각들이 이애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11문〉 온 누리의 사람들이 색을 보고 색을 초월하지 못하고 소리를 듣고 소리를 초월하지 못하니, 어떠한 것이 소리와 색을 초월한 것입니까?

(※ 이 아래의 열 가지 물음은 나옹조사의 물음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답〉 성색(聲色)을 초월하여 무얼합까.

(※이 아래의 열 가지 물음은 나옹조사가 공부의 절목(節目)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착어(着語)를 붙이는 데 그칠 뿐이다.)

〈제12문〉 이미 소리와 색을 초월하였다면 반드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이니, 어떻게 바른 공부를 해야 합니까?

〈답〉 벌써 삿된이로다.

〈제13문〉 이미 공부를 하였다면 반드시 공부가 익숙해야 할 것이니, 공부가 익숙할 때에는 어떠합니까?

〈답〉 밥이 익는 것은 그럴싸 하지만, 공부가 익는 것은 아니다.

〈제14문〉 이미 공부가 익숙하였다면 다시 더욱 콧구멍을 잃어야 할 것이니, 콧구멍을 잃어버릴 때는 어떠합니까?

〈답〉 익숙된 공부 이전에도 또한 콧구멍이 있는가, 없는가.

〈제15문〉 콧구멍을 잃어버리면 냉랭하고 담담하여 전혀 맛이 없고 힘이 없어 의식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행하지 않는 이러한 때에도 또한 환신(幻身)이 사람에게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하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시절입니까?

〈답〉 환화공신(幻化空身)이 곧 법신(法身)이요, 무명실성(無明實性)이 곧 불성(佛性)이다.

〈제16문〉 공부가 이미 동정(動靜)에 사이가 없고 자나 깨나 항상 한결같아서, 부딪쳐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방탕하여도 잃지 아니하여, 마치 개가 뜨거운 기름 솥을 넘보는 것처럼 핥으려고 해도 핥을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리지 못할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절대 자만하지 말라.

〈제17문〉 갑자기 120근의 짐을 부려버리는 것처럼 졸지에 꺾이고 갑자기 끊어진 때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것이 자성(自性)입니까?

〈답〉 장한(張翰)이 감동으로 떠나가니, 바로 가을 바람이 불어온 때이다.

〈제18문〉 이미 자성을 깨쳤다면 반드시 본용(本用)과 응용(應用)을 알아야 할 것이니, 어떠한 것이 본용과 응용입니까?

〈답〉 몸을 감춘 곳에 자취가 없고, 자취가 없는 곳에 몸을 감추지 말라.

〈제19문〉 이미 본성의 작용을 알았다면 생사를 초탈해야 하니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죽음을 말함)에는 어떻게 초탈해야 합니까?

〈답〉 잠꼬대 하지 말라.

〈제20문〉 이미 생사를 초탈하였다면 갈 곳을 알아야 할 것이니, 사대(四大)가 각기 나누어짐에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까?

〈답〉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

〈제21문〉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제접하시렵니까?

〈답〉 너에게 대도(大道)를 체득하도록 하여줄 것이다.

또 물었다.

"이미 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대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답하였다.

"다만 이 하나의 봉합(縫合)을 오히려 어찌 할 수 없다."

다시 물었다.

"위에서 말한 스물 한 가지의 대답은 철저하고 철저하지만 이후의 한 방망이는 어떻게 상량하시렵니까?"

답하였다.

양화병(養化柄)을 치면서 말하기를,

"무슨 견해를 일으키는가."

또 물었다.

"나를 잘못 치지 마소서."

답하였다.

"그만 두어라. 그만 두어……. 말하지 말라. 나의 법은 오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각주 23)종 고 (宗杲) : (1089~1163)중국 송나라 때 임제종 승려. 자는 대혜(大慧), 법호는 묘희(妙喜). 처음 조동종의 여러 스님들을 섬기고, 뒤에 장당무준(張堂無準)의 시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원오(圓悟)의 법을 이었다.

24)팔식(八識) : 유식종(唯識宗)에서 나누는 식의 종류.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말나식(末那識)·아뢰야식(阿賴耶識)

## 만화 法句經 법구경

*마음의 장*
이몸은
물항아리 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향 원





# 모 집

* 본 학원은 큰 규모와 탄탄한 강의를 자랑합니다.

●

일본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기초부터 고급회화까지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사무보조 내근직 아르바이트도 제공됩니다.

●

불자라면 특히 좋습니다.

●

**문의 전화 : 737-5689**

니시무라(재일교포)/ 한국명 : 김광섭

**일본어 문화원**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 수련장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 (0593) 34-1115~6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직원모집
경리 1명(女)·관리 1명(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이력서 1통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3 Fax(02)723-0646

# "선수행의 寶庫이므로 징검다리 놓았을 뿐"

<대지관좌선법> 주석서 최초로 펴낸
김 무 득씨



지관선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지관선 주석서가 출판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중원불교대학장 김무득씨가 펴낸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운주사)이 바로 그것으로, '마음을 직관해서 깨달음에 이른다(直指人心見性成佛)'는 달마선에 대해 "그것은 선에 대한 반쪽의 모습일 뿐"이라는 비관을 제기한다.

"달마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지관선에 대한 이해없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석가세존의 깨달음의 방편이었던 지관법에 대한 이해없이 중국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달마선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에서의 달마선도 지관선과의 끊임없는 상호교류와 영향속에서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관법은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방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방편인 동시에 석가에 의해 보다 풍부해지고 구체화된 수행법이다.

곧 '지(止)'란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일체의 외부대상이나 내부의 산란한 상념에 동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일을 말하며, '관(觀)'이란 마음속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일체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김씨는 설명한다.

전5권 가운데 3권까지 주석을 붙여 펴낸 〈대지관좌선법〉은 중국 천태종 개창조인 천태지자대사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그의 제자 장안대사가 받아 쓴 선수행서. 고희를 넘긴 김씨가 5년전부터 한국불교 선학 발전을 위한 자료제공의

## "한국선학의 불균형 바로잡는 계기됐으면"

뜻으로 우리말로 옮기고 꼼꼼한 주석을 붙여 풀이했다. 원고량만도 2백자 원고지 7천5백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오는 7월 전5권이 완간되면 지관선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가 되는 것이다.

"〈대지관좌선법〉은 어렵고도 방대한 분량의 책이어서 여지껏 누가 번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책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방편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선수행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주석을 붙이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일에 비유하는 김씨는 "이 책을 통해 달마선에 편향된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이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는 〈대지관좌선법〉을 마치는대로 선종의 대표적 저작으로 불리는 〈벽암록〉에 주석을 붙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 대중에게 희망주는 스님들 이야기

## 인간적 면모 · 구도행각 잔잔히 묘사

명사추천 불서 100선

### 자네, 道가 뭔지 아나



김 성 동 〈소설가〉

꿈같고 허깨비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은 것이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였던 것은 누구의 '한소식'이던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내음도 없는 '그 무엇'을 찾아보고자 신새벽의 산길을 허위단심 올라갔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언 서른 해가 흘러갔다. 연꽃은 그만두고 업장(業障)만 더욱 무겁게 한 채 다시 저자의 진흙창 속으로 돌아온지도 어언 스무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가(出家)'를 생각하고 있는 요즈음, 효림(曉林)스님의 책을 읽어보는 심경은 착잡하다.

이 책에도 나오는 청담(靑潭)스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열아홉 살 나던 해 였던가. 그 함자만큼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고승(高僧)을 직접 뵈옵고 몇마디 가르침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방황하는 소년의 가슴은 여간 설레이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인연이었겠지만 지효(智曉)스님을 뵈옵고 그 길로 산으로 간 소년이 그 스님을 뫼시고 해인총림(海印叢林)으로 내려가 성철방장(性徹方丈)의 장군죽비 아래 가부좌를 틀어볼 수 있었던 것은 더 지중한 인연이었다.

청담 지효 성철 우화스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계신다. 인정많은 할아버지같으시던 지월(指月)스님도 안계신다. 비록 책으로나마 그 어른들을 다시 뵈올수 있는 나는 그래도 아직 선근(善根)인가.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수행자(修行者)들 가운데는 필자와 인연을 맺었던 이들도 보인다. 어떤 수행자와는 함께 동안거(冬安居)를 하며 뒷산에서 넘어지는 설해목(雪害木)소리에 화두(話頭)를 놓치기도 하였고, 어떤 수행자와는 함께 만행(萬行)을 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수행자와는 또 함께 부처와 중생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어떤 이들은 벌써 열반(涅槃)에 들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죽비소리에 온몸을 맡기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 괴각승」 혜수(慧修)스님과 강화(江華) 전등사(傳燈寺) 객실에서 헤어질 때 그는 "금강산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는 금강산으로 가다가 기관에 잡혀가 무수한 구타를 당하였는데, 계속해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구타를 당하던 끝에 열반을 재촉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스무몇해 전 만났던 종태(宗跆)스님의 초청으로 화엄사(華嚴寺)에서 '실천불교승가회' 스님들과 '미륵사상'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그러께였는데, 그 스님 또한 지금은 사바에 없다.

지리산 반야봉 아래의 신비한 비구니 연화스님, 겨울산을 헤매다 간 설도인 혜명스님, 늘푸른 잣나무 동선스님, 좌탈입망한 명문스님, 도인이 되고 싶었던 할스님, 먹지 않고 사는 청허스님, 바람을 가르는 기린 명진스님 등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스님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사람의 내음이 난다는 점이다.

스님이라고 해서 별세계의 특수종자가 아니라 우리네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삼악도(三惡道)의 중생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산'이요 산에 사시는 '스님'들일 것이다. 일체중생의 일체번뇌에 막힘없는 해답을 하여줄 수 있어야만 마침내 '진리'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진리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이 스님인 때문이다.

## 화제의 책

### 여래장사상의 비불교성 밝혀 주목

부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연기설이다'는 것이 〈연기와 공〉의 기본적 입장이다. 즉, 우리가 관성적으로 불교의 근본사상이라고 믿어왔던 여래장사상은 실상은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며, 부처님에 의해 극복된 붓다 이전의 사상적 견해라는 것이다.

나아가 불교의 근본사상은 연기설이며, 연기설과 여래장사상은 사상적 논리적으로 서로 대립된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의 불교가 불교다울 수 있으려면 불교와 비불교적인 것들의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의 핵심이 바로 여래장사상의 비불교성을 밝혀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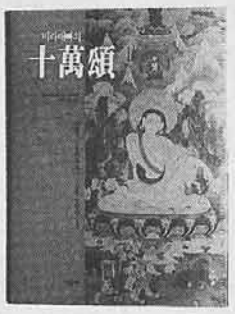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를 비롯 기존의 불교학의 연구성과를 비판한 6편의 논문을 실었다. 〈혜원 옮김, 운주사, 6천5백원〉

연기와 공
마츠모드 지음



### 깨달음 노래한 티벳문학의 정수

미라래빠의 십만송
이정섭 옮김



▲ 〈미라래빠의 십만송〉은 티벳의 대표적인 성자 미라래빠(1052~1135)의 생애와 그의 깨달음의 노래를 담고 있다. 성자의 전기 혹은 헌신과 수행의 지침서로, 노래와 시집으로 그리고 티벳 전설로 가득 차있어 '영감과 기쁨의 원천'으로 불릴 정도로 티벳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힌다.

티벳의 수행자 가르마 첸치창이 영역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시험당하는 미라래빠' '미라래빠와 제자들' '전해지는 이야기들' 등 3부 6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라래빠는 중국의 선불교를 제외한 대승불교의 어느 누구보다 많은 각자(覺者)를 배출한 인물로, 선불교를 꽃피운 육조혜능의 영향과 공헌에 비유될 만큼 위대한 수행자로 평가된다. 〈시공사, 1만8천원〉

### 작지만 소중한 가치 일깨우는 어른동화

샘물과 바가지
정찬주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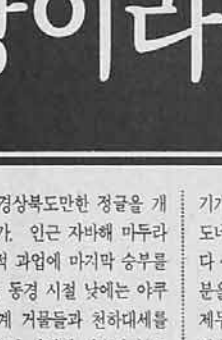
우리는 현사회를 각박한 사회, 도덕성이 상실된 사회라고 심심찮게 말한다. 패륜적 사건이 연일 보도매체에 오르내리고, 사회 곳곳이 무너지는 등 혼미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혹 정신의 부재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린세상이 기획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어른동화'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집인 〈샘물과 바가지〉에 담긴 글들이 우리 삶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한 본보기를 보여준다.

각 장의 표제작인 '좋지요, 좋지요' '무소의 뿔처럼' '눈물 한방울의 말' 등의 작품은 가장 왕성한 희망과 신념,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사회와 직장이라는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2,30대 직장인들의 갈등과 고뇌에 대한 처방전으로도 읽힌다.〈열린세상, 전3권, 각5천원〉

### 불자기업인 최계월의 감동적 삶 그려

그들은 나를…
권태하 지음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는 불심으로 기업을 일군 최계월 회장(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실명소설. 일찍이 지구촌을 무대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최계월의 풍운아적 삶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상권에는 최회장의 일본군 시절,야쿠자에 얽힌 사연 등 드라마틱한 삶이 진솔하게 펼쳐지며, 하권에는 칼리만탄(옛 보르네오) 진출배경과 박정희대통령 김종필 이후락씨와의 교유, 일본의 사토내각 수립에 간여한 일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60년대말 해외진출 투자사업 1호로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섬 정글을 개척, 원목 조림 에너지개발 사업을 벌이기까지의 일화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요즘 많은 것을 생각케 해준다. 〈중앙일보사, 전2권, 각 5천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역자 | 출 판 사 |
|---|---|---|---|
| 1 |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 장경각 |
| 2 | 자네, 도가 뭔지 아나 | 효림 | 대원정사 |
| 3 | 연꽃만화 | 장지연 | 부다가야 |
| 4 |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 윤승운 | 불지사 |
| 5 | 금강경 강의 | 무비 | 불광출판부 |
| 6 |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 암도 | 우리출판사 |
| 7 | 사천강단(四川講壇) | 민영규 | 우반 |
| 8 | 능엄경 주해 | 운허 | 동국역경원 |
| 9 |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 관심 | 대원정사 |
| 10 | 알기쉬운 불교 | 편성부 | 불교방송 |

구입문의:(02)737-0695

### 종교도서 4.8% 줄어 작년 전체신간은 늘어

지난해 출판계 전체의 신간 발행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종교분야 발행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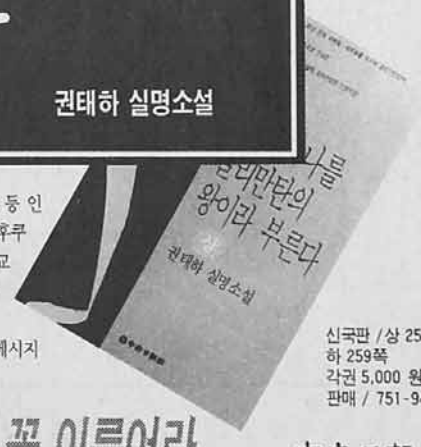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의 '94 출판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행총수는 29,564종으로 93년보다 12.3% 늘어났으며 발행부수도 1억5천여만부로 9.4% 증가했다. 반면 종교도서는 93년 2,040종에서 1,941종으로 4.8% 감소했다. 책값은 8,185원으로 7.8%높아졌으며, 면수도 260면에서 267면으로 늘어났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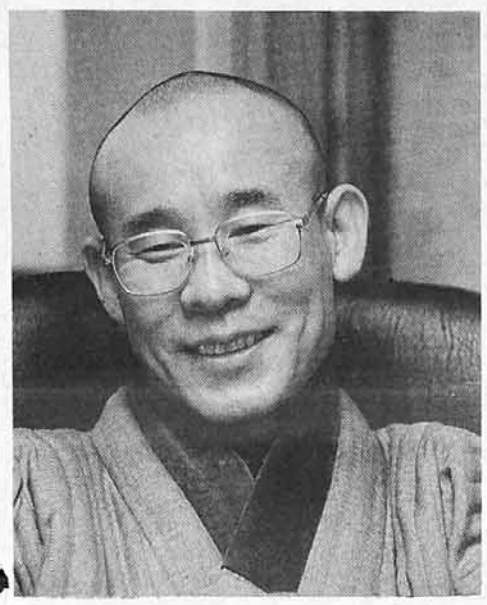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인터뷰 덕신스님 〈조계종 문화국장〉

조계종이 불교문화 현장의 땅 고르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총무원 조직개편에서 새로 신설된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그간 종단이 소홀히 해왔던 불교문화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기획을 마련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기본 골격의 구성과 각종사업의 시안을 마련, 문화포교의 극대화를 꾀할 문화사회부의 계획을 문화국장 덕신스님에게 들어보았다.

—영역도 넓고 그만큼 할 일도 많은 문화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화포교 관련 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불교문화 전문위원회 구성"

### 문화재학교 개설, 대형미술전도 개최

▲무엇보다 불교 문화계를 총괄해 방향을 이끌어 갈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문화라는 특수성을 감안 각분야의 전문학자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진급 인사를 모아 불교문화전문위원회를 상반기중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미술, 공연, 음악, 문학 등 각 분야에서 노출되어 온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종단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첫째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찬불가심의위원회등 각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전문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각 분야의 중견급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구체적인 활동방향들을 타진하고 있는데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계에 산재된 문화관련 단체들을 파악 대표자들과의 토론시간도 가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각 분야마다 기꺼이 전문위원으로 활약해 줄 인사도 많고 총무원의 의욕도 높습니다.

—성보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계획은.

▲역시 기초자료를 모아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전문위원중 몇분의 인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본 결과 전문위의 구성과 그를 통한 문제점 파악, 효율적인 대안 마련등이 금년내로 기본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화재학교등을 마련 성보 관리를 위해 스님과 불자들을 교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종단의 자체교육은 큰 효과를 보여 줄 것입니다.

—청소년·아동 관련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미전의 역대 입상자와 불교미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 전시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가을에 열게 될 이 전시에는 불교미술의 전분야에 폭넓은 작가들이 참석토록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불교아동 미술대전도 올봄에 반드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

# 도제·학부파 교류 새경지 개척

## 요란한 중창불사·예술융합 절실

'95 미술의 해

###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1



◇김흥복씨의 작품 「천은불보」

불교미술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미술이 갖는 특징때문이다. 불교미술은 창의성 이전의 신앙적 의미부여가 강조되고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가치평가가 앞서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오늘날 불교미술 작가들은 전통의 계승과 창작의 영역확대라는 두 측면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과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불교미술에 국한됐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예술영역의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시도되며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 작가 현황·과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 하나는 동국대등 대학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창작활동을 하는 쪽이고 또 하나는 실기 위주로 기능을 쌓는 쪽이다. 이른바 「학부파」라고 할 수 있는 앞의 경우는 개인적 재능과 이론적 수업이 뒷받침된 작가들로 한국불교미술협회, 불교미술인협회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해당되는 작가는 대략 4백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능 익히기를 우선시한 「도제파」로 불릴 수 있는 작가들은 창작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대개 전통기법의 계승에 몰두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학부파는 창작에, 도제파는 전통에 주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쪽의 작가이건 전통불교미술의 토대를 바탕으로 개인적 창작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의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동국불교미술인회의 경우는 학부파와 도제파의 건설적인 만남으로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불교미술 작가들 중에는 학연이나 도제의 맥과는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의 주제를 불교사상에 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종교는 개신교이면서 작품의 소재나 주제는 불교에서 찾는 작가도 있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한다면 불교미술계의 인적 구성은 그 폭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작가의 숫적 확산과는 별개로 예술의 표현 형식에 있어 불교미술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술적으로 용해되어 신앙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 불교미술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것이 불교미술에 대한 대체적인 정의다. 또한 이같은 불교미술을 창출해 내는 작가라면 당연히 불교적 메시지 전달을 작업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영역의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긍정하고 있다.

오늘날 불교미술 작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이다. 이 당면한 과제 풀기에서 작가들은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도 다채롭게 나오고 있다.

조계종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불교미술전람회가 10여년 전부터 현대불교미술 분야를 강화한 것은 불교미술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의 선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회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현대미술품이 접수되는 실적도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불교미술의 전통을 고스란히 전수한 작가는 얼마나 될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같은 질문에 서슴없이 거론할 수 있는 거장은 그리 많지 않다. 불화부분의 경우 석정스님과 만봉스님이 가장 두드러진 산맥이라면 그 맥을 잇기 위해 문하에서 수학하며 정통화법을 철저히 배우며 장인정신을 키워가는 후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현대적 화법을 개척하거나 조각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신선한 이미지를 세우는 작가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잇는 인재와 신선한 불교미술의 영역을 개척해 낼 예인의 양성에 보다 큰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국대나 태고종 동방불교대등 교육기관이 이 분야의 인재 기르기에 과감한 배려를 해야 하고 종단 차원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불교미술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로 불교미술에 대한 승가와 재가 모두를 포함하는 감상자의 안목이 꼽히고 있다. 불교미술 작가들이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불교미술은 전시회를 통해서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지어지는 사찰의 당우도 불교미술의 건축분야에 해당된다. 그 당우를 장엄하는 단청이나 벽화, 탱화도 불교미술의 회화분야에 해당되며 모셔지는 불상이나 수미단, 닫집 또 틀에 세워지는 탑들은 불교미술의 조각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사찰이 불사를 추진해 새로 짓는 한동의 당우는 불교사상과 신앙의 의미가 예술성을 담보로 총괄된 불교미술의 종합적인 전시장인 셈이다. 사찰의 외부에는 감상용 조각품이나 조형물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법당내부에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성보들이 모셔질 때, 완벽한 불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전통계승과 현대화의 꾸준한 시도로 창출되는 불교미술은 우리시대 신행의 표현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볼때 과연 전국에서 행해지는 신축 중창 불사의 규모에 비해 얼마나 아름다운 불교미술이 창출되고 있느냐는 질문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질문 역시 만족스런 답을 내놓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찰측의 경제적인 측면과 예술적 가치창조의 괴리감도 문제지만 후세에까지 자랑할 만한 우리시대의 불교미술 전시장으로서의 건축 불사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승가의 안목이 높지 못하다는 것이 미술사 전공자들의 지적이다.

큰 의미로 볼때 우리 시대의 불교미술은 곧 우리 시대 불교신행의 표현이다.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창작품의 양산, 감상자들의 인식 제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각종 불사들.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교미술계는 미술의 해를 맞아 우선적으로 인식전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미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연태 기자〉

## 불심시심 〈10〉

### 넘볼 수 없는 뜰

中無一物本來淸 (중무일물본래청) 아무것도 없는 속 원래 맑아서
擧世無人窺戶庭 (거세무인규호정) 온 세상 누구도 이 뜨락 넘볼 수 없다.
鳳簫龍吟破禪寂 (봉소용음과선적) 봉의 휘파람 용의 울음으로 선적을 깨쳐
一等明月滿江城 (일등명월만강성) 한 줄기 밝은 달 강 마을에 가득하다.

이 시는 고려말 태고(太古) 화상의 시이다. 죽암(竹庵)이라 호를 지은 제자에게 주는 명호송이다. 고려말에는 이러한 명호송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수계와 동시에 계명을 받고 그 계명에 상응하는 법문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윗 시는 대나무로 둘러싸인 암자의 고요함을 읊었다. 그러면서도 각 구는 대나무의 특성을 말하여 이호의 주인공에 대한 인품을 암시하고 있다. 첫 구에 있어 '아무 것도 없는 속 원래 맑다' 함은 우선 대나무의 텅 비어 있는 속을 말함이지만, 암자의 청함함을 말한 것도 되고 아울러 주인공의 청빈성도 연상할 수가 있다. 이렇듯 글자 자체의 의미와 주인공의 인품이 함께 살아난다. 이것이 선과 시로 어울리게 하는 묘미이다.

아무리 텅비어 있어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대나무 속이다. 절문이 확 열려 텅 빈 것이 뜰이지만 쉽게 그 문 안의 세계를 넘볼 수 없는 것이 역시 승속의 거리인 것이다. 이 호를 가진 주인공의 인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승속불이라 하여 스님과 대중이 하나인 것 같지만 스님의 깊은 뜻을 쉬이 알 수 없는 것이 속인의 헤아림이다.

그렇다고 항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기에 더더욱 소리날 수가 있다. 악기의 소재로서 대나무가 으뜸인것도 댓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 빈속에서의 울림은 용이나 봉황의 소리이다. 부처님의 사자후가 바로 이 울림이요, 스님의 법말씀이 바로 이러한 울림인 것이다. 이 울림이 삼라 만상의 모든 고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하여 고요함이 바로 시끄러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 가에 드리운 낚시대 끝으로 돌아오르는 달처럼 한적한 것이다. 강 마을을 가득 메운 달빛처럼 맑고도 고요한 것이 스님의 외침이다.

이종찬〈동국대교수〉

## 탑평리 7층탑 발굴지 정비

### 충주시, 미륵사지등 문화재 보수

충주시는 13억2천5백만원을 들여 국보 6호인 중앙탑등 관내 문화재를 보수키로 했다.

시는 사적 317호 미륵리 사지정비에 7천1백만원과 지방기념물 31호 충주산성 보수에 우선 투자하고, 국보 6호 탑평리 7층 석탑 발굴지 정비조경에 3억을 투자하는 등 모두 13억2천5백만원을 들여 12건의 문화재를 보수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문화재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재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 김인만씨등 4명 당선

### 동쪽나라 아동문학상

월간 「굴렁쇠어린이」와 도서출판 「동쪽나라」가 주관하는 동쪽나라 아동문학상 시상식을 지난 2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가졌다.

당선자는 장편동화부문에 모닥불이 되고 싶다의 김인만씨, 단편동화부문의 흰고무신 이야기에 오옥주씨, 손톱깍기의 16편의 동시를 출품한 김현씨, 유아동화부문에 통통아저씨와 안경의 1편을 선보인 김상희씨 등 4명이다.

## 제3기 졸업공연 가져

### 극단 어린이 굴렁쇠

극단 굴렁쇠어린이(대표 김형균)가 지난 21일 연극학교 제3기 졸업공연을 가졌다.

춤노래극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대본놀이 아름다운 선물의 작품에 23명의 졸업생이 총출연해 그간 공부한 재량들을 발휘했다.

극단 굴렁쇠어린이 연극학교는 92년 3월 창립,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상상력, 논리력,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운영돼 온 순수 어린이 전문 극단이다.

## '95 미술의 해 선포식 거행

### 16일 세종문화회관서

문화체육부와 미술의해 조직위원회는 정부와 문화예술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95 미술의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문체부 주돈식장관의 미술의해 선포에 이어 김영삼대통령의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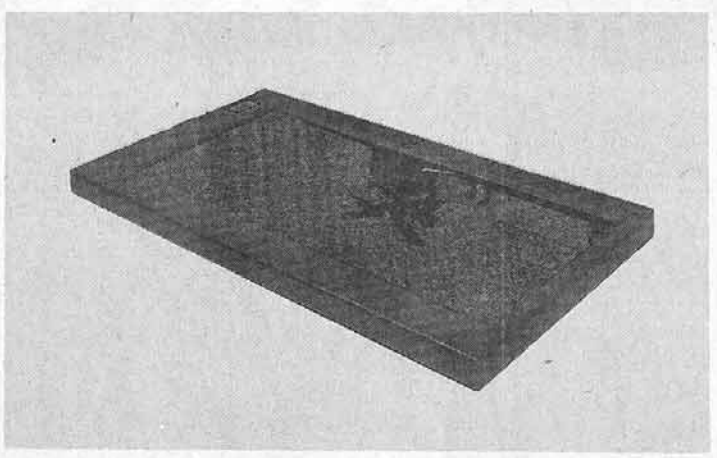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EMI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

■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 기간 1995. 1. 26까지 —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백화점 — 소비자

•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불자연예인들

# "올해도 자비 발길 바빠요"

## 소년가장·재소자·해외동포 위문공연 잇따라

새해들어 연예인 불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예인들은 불법홍포에 그 잇점을 살려 그 동안 신행활동뿐 아니라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물질문명이 빚어낸 패륜아에게 사랑을, 불신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자비를」이라는 신년 활동방향을 정한 불자연예인들은 공인으로서 '부처님 말씀 펼치기'에 한류을 단단히 해낼 각오로 그 어느해보다 분주한 움직을 보이고 있다.

신행과 자비실천을 목적으로 연예인 불자들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단체는 한국연예인불교회, 백련장학회, 불자가수회, 연예인자비회 등이다.

지난 90년 6월 6일 6명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연예인불교회(회장 송해)는 결성 이래 매월 세째주 화요일 2시면 조계사에서 어김없이 정기법회를 갖는 등 신행위주의 활동을 펴 오고 있다. 한국연예인 불교회는 더욱 활발한 신행활동으로 적극적인 불자상을 제시하자는 것을 신년지침이자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다.

"서로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회원들은 한결같이 정기법회날이면 열일 제쳐놓고 부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이는 불자연예인들의 긍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송해씨의 자랑이다.

송춘희씨를 회장으로 「이타행」을 모임 결성의 취지로 삼고 있는 백련장학회는 91년 3월 발족이래 줄곧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는 봉사단체로 4년째 16명의 불우한 중고등학생에게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백련장학회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숨은 후원자로 보살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장 송춘희씨는 "우리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을 꿋꿋이 이겨 훌륭한 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성장할때 우리 회원들은 눈시울이 뜨겁도록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에도 보다 많은 학생들과 자비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백련장학회는 더 나아가서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확대해 알려지지 않은 고아원등을 찾아 모성애, 부성애의 사랑을 나눠줄 기회 또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 영등포교도소 방문을 시작으로 재소자들의 재활도 도울 계획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자비의 실천행으로써 품안에 꼭 보듬어 안아 주고 싶다는 것이 백련장학회 300여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지난 13일 양산 통도사 청년회주최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공연을 마친 불자가수회(회장 진송남)는 포교활동뿐 아니라 2월 르완다 난민돕기공연, 3월 전국맹인불자회 위문도 계획하고 있는 등 95년도엔 의뢰받는 행사에뿐만 아니라 소외된 곳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회장 진송남씨는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곳을 찾아 향기로운 노래로써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설명했다.

연예인자비회는(회장 지연)는 안으로는 불성회복을, 밖으로는 군부대·교도소등 위문공연 및 교화공연을 전개할 방침을 세워놓고 지난 1일 탑골공원 노인 위안잔치를 시작으로 4월에는 연변일보사가 주최하는 중국 연변동포 위문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 천주교서 개종한 가수 김세레나씨

집안대대로 성모마리아를 신앙하던 천주교인 김세레나씨. 지난 연말 김씨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의 이름에서 말해주듯 김씨는 미션스쿨인 고등학교에서 '세레나'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크리스찬으로서 한생을 살았다.



김씨는 "할머니와 아버지는 성당엘 나가셨지만 어머니는 절엘 다녔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나에게도 불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내가 개종하기에는 불자가수회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다"고 귀띔했다.

김씨가 불자로 개종하는데 큰 힘이 된 불자가수회 부회장 장미희씨는 "김씨가 천주교인이면서도 행동 하나하나, 사고 하나하나는 상당히 불교적이었다"고 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쁜 일정과 긴장감 속에 쫓기는 나의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고 말하는 김씨는 "불교인으로 살도록 도와준 불자가수회와 더불어 신행활동뿐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성실한 불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피력했다.

김씨를 불교인으로 이끈 불자가수회는 앞으로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포교사업을 펴 나갈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선〉

##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전국 50곳…전문강좌 늘어

불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불교교양대학이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95학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생겨 현재 50여개를 헤아리고 있는 불교교양대학은 교리강좌·생활문화 강좌등은 물론 점차 전문적인 강좌도 늘고 있는 추세.

전국 각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개설된 불교교양대학은 성지순례 철야정진법회 등도 마련, 신앙고취와 교양을 함께함양토록 해 불자교육의 모델로 정착될 전망으로 직장인·주부등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의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에서 포교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불교교양대학 과정을 이수한 불자를 대상으로 '포교사고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불교교양대학에 대한 불교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불교교양대학 모집안내

| 학교명 | 모집학과 | 원서마감 | 개강 | 연락처 |
|---|---|---|---|---|
| 대원불교대 | 불교학(출강·통신과정) | 2월말까지 | 3월초 | (02)776-7156 |
| 동산불교대 | 정규반, 통신반 | 2월8일까지 | 2월11일 | (02)732-1206 |
| 해동불교대 | 법사과, 삼장법사과 해외전법사과 | 2월28일까지 | 3월2일 | (02)741-0495 |
| 동방불교대 | 불교학과, 범패과 불교미술과, 한의예과 | 2월17일까지 | 3월초 | (02)763-0229 |
| 삼화불교대 | 불교학과, 중국어과, 신문방송과, 유아교육과 불교미술과 | 1차:1월27일까지 2차:2월23일까지 | 3월초 | (02)511-1080 |
| 대구불교대 | 전공반, 교양반 | 2월25일까지 | 3월초 | (02)256-3725 |
| 금강불교대 | 천태학과, 불교학과 | 2월11일까지 | 3월초 | (02)464-3306 |
| 화엄불교대 | 불교기초반 | 2월중순 | 3월초 | (0652)75-1018 |
| 조계사불교대 | 불교학과 (주간, 야간, 통신반) | 2월25일까지 | 3월20일 | (02)720-6742 |
| 광주불교대 | 불교학과, 법사과 | 3월20일까지 | 3월2일 | (062)375-7600 |
| 금정불교대 | 초급반, 중급반, 특별반, 경전연구반 | 2월22일까지 | 2월27일 | (051)866-7277 |
| 전북불교대 | 불교학과, 보현학림 | 1월28일까지 | 3월5일 | (0652)86-3977 |
| 화엄불교학교 | 기본교육입문과정 | 3월16일까지 | 3월16일 | (02)933-0180 |
| 동국불교전법 | 전교사과정, 정법사과정, 기초교리 과정 | 1월27일까지 | 3월초 | (051)465-6242 |
| 부산불교교육대 | 포교사반, 교리반 | 2월말까지 | 3월2일 | (051)818-8659 |
| 부산불교교육원 | 입문자 과정 | 2월8일 | 2월9일 | (051)466-4079 |
| 이리불교대 | 입문자 과정 | 2월말 | 3월초 | (0653)54-1578 |
| 한국불교법사대 | 법사과정, 오종교법사과정, 오종대법사과정 | 2월28일 | 3월초 | (02)720-1836 |

## 해외통신

### 관음보살상 주화에 새겨 중국서 3천세트제작

자비의 화신 관세음 보살상이 처음으로 주화에 새겨졌다. 미국 판다 아메리카(Panda America)지의 보도에 따르면 1994년 중국에서 관세음상이



새겨진 은화를 시범적으로 3천세트 발행했다고 한다. 각세트에는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등 서로 다른 자세의 관음상주화가 4개씩 들어있다.

### 이탈리아에 불자 급증 영화 '부다'·축구스타 영향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도 불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부리엘 데 로사신부는 이미 이탈리아에 3만명의 불자가 있으며 13만 5천명을 넘어서리라는 전망이라고 전한다.

이에따라 로마교황청 발행 격주간지인 라 시빌타 카톨릭지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리틀 붓다의 성공, 불자인 이탈리아 축구선수 로베르트바지오를 위시한 불자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교회 당국자들은 더욱더 많은 카톨릭신자들이 불교로 개종하리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Tricycle 1994, 겨울호 인용. 박미영 기자〉

### 스리랑카, 교황방문 거부 "불교수행과정 잘못이해"

교황 요한 바오르 2세(74)는 지난 12일부터 아·태지역 순방에 나서 21일까지 필리핀·파퓨아뉴기니·호주·스리랑카 4개국을 방문하던 중 스리랑카 불교계의 방문거부 요청으로 인해 순탄치 못한 일정을 보냈다.

불교국인 스리랑카에서 교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최근 베스트 셀러가 된 그의 저서(희망의 문턱을 넘어서(Crossing the Threshold of Hope))에서 불교의 수행과정을 부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비롯됐다.

# 종단발전특위 53명 구성

## 태고종 2월부터 개혁작업 착수

태고종(초무원장 박서봉)은 지난 5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종단간부 회의를 열고 제6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결의한 종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위원 53명을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서봉스님을 비롯 3부기관장 스님과 각 시·도 교구종무위원장 스님들이 참석해 95년도 중요사업실행계획과 종단 현안문제, 종권수호방안, 종단특별위 구성문제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20명, 전국 11개 지방교구 종무원에서 각각 3명씩 33명을 선출, 총 53명의 위원을 선출해 이달 하순경 총무원에서 1차 회의를 거쳐 분과를 구성, 2월부터 실질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특위는 종단 기관조직정비, 종단당면 현안문제 해결, 종단중장기 사업계획수립 시행, 종단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태고종의 개혁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종단협 정관개정 추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위한 11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 여래종 총무원장과 보문종 부원장 및 부장들로 구성된 11인 소위원회는 종단협 부회장단 확대, 상임이사회 활성화등 종단협 활성화를 위한 정관개정및 사업계획 예산등을 작성 이달말 회의를 거쳐 2월 총회에 상정한다.

### 성남 자광원 위문 태고종 총무원

지난 연말부터 총무원사업의 하나로 이웃돕기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태고종총무원은 17일 성남 뷰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을 방문하고 의류 신발등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 법화종 미얀마 방문 양국교류 논의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은 미얀마 종무승장관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부터 7일간 미얀마를 방문했다.

법화종은 미얀마 종무승과 양국간 불교교류발전을 도모키위한 결연을 맺고 오는 3월경 미얀마 종무승들을 한국으로 초청, 불교교류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 불교중흥 닻올려 선우도량 2기출범

선우도량(대표선우 도법스님)이 '올바른 승가상 확립'을 통한 승풍진작 과 불교의 올바른 사회적 실천을 기치로 내걸고 불교중흥에 일로매진할 제2기 출범의 닻을 올린다. 선우도량은 오는 3월 16·17일 양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련결사 및 총회를 열고 제2기 집행부와 실행선우를 선출하는 등 실질적 쇄신정립을 꾀하기 위한 포석을 놓게된다.

그동안 자체정비에 주력해온 선우도량은 이번 수련결사를 통해 한국불교 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밀양 천황사「석불좌상」보물지정

## 문체부, 경북 파계사「영산회상도」도

문화체육부는 지난 10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경남 밀양 천황사「석불좌상」과 경북 달성 파계사「영산회상도」를 보물 제1213, 1214호로 각각 지정했다.

경남 밀양 얼음골 천황사 경내에 있는 석불좌상은 광배만 없을뿐 대좌와 몸체부로 이루어진 8세기 후반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이 불상은 특히 대좌의 하대부분에 사자좌를 갖춘 현존유일의 불상으로 신라조각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북 달성 파계사에 있는 영산회상도는 1707년(조선 숙종33년) 왕실의 발원으로 조성된 군집도 형식의 불화로 다른 영산회상도와 다른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불화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석가여래의 키형광배에 두광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둘째, 불의에 흔히 쓰이는 복전문이 없으며 세째, 오른쪽 발목에 꽃잎같은 장식(치견)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18세기초 우리나라 불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 목탁소리

### 두스님의 원력

임 연 태 〈취재2부 차장대우〉

'한국의 불화'가 편찬된다.

전국 사찰에 산재된 불화들을 한자리에 모아 도록으로 묶어낸다는 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훼손의 우려가 높은 불화를 도록화 함으로서 영구히 자료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우선적인 의미다.

이 작업을 추진하는 석정스님과 범하스님도 이 점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불화들을 도록으로 묶어냄으로서 도난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 사실 문화재 도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불화들이었다. 관심의 정도도 낮고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를만큼 정리도 되지 않았던 것이 불화였기 때문이다.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화들의 제작연대나 그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성보로 간직하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달에 나온 직지사 본말사 사지 작업 과정에서도 몇점의 불화들이 대단히 가치있는 성보로 판명됐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기왕에 시작된 이 대작불사는 10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아야 한다.

석정스님과 범하스님의 원력은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의 사찰을 답사하는 두 스님의 원력은 이제 불교 전체의 원력으로 증폭되어야 한다. 본·말사별로 진행될 이 작업에는 모든 사찰이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불화뿐 아니라 보다 정확한 사지(寺誌)도 펴내는 문화적 안목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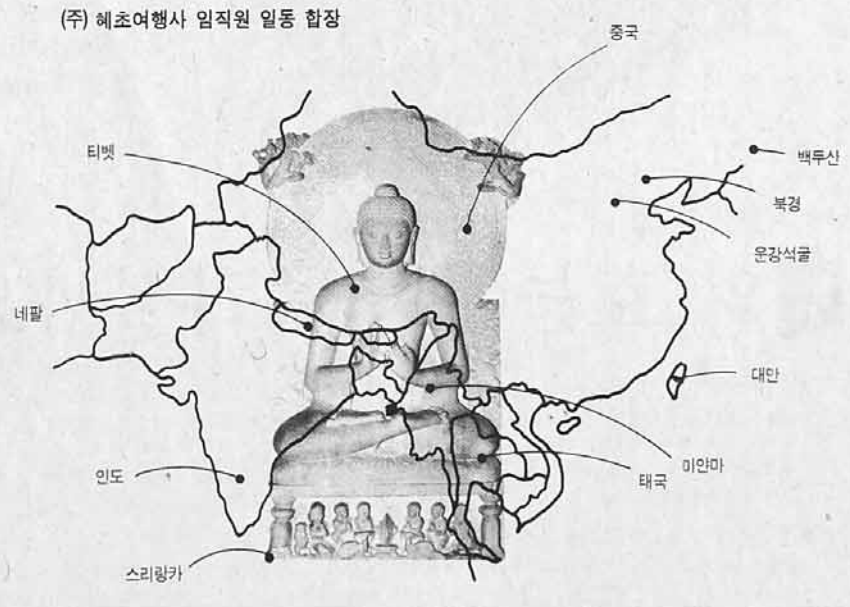
본·말사가 참여할 경우 이 불사의 회향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아울러 종단과 진흥원등도 이 불사를 개인의 원력이라고 구경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을해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장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2월 12일 ·동참금:215만원
·일정: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출발:3월 2일 ·동참금:165만원
·일정: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얌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2월 10, 24일 ·동참금:108만원
·일정: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2월 19일 ·동참금:85만원
·일정: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출발:2월 20일 ·동참금:65만원
·일정: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 탱화속의 불보살 한자리에

## 본사단위 도록 총 60권 발간

### 석정·범하스님 1600년만의 첫 원력 불사

◇전국사찰의 불화를 한 자리에 모은 「한국의 불화」가 금년부터 출간된다. 불화의 보존은 물론 역사적 의의까지 상세히 밝힐 이 작업은 총 60권 분량의 화집을 묶는 대작불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직지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

전국 사찰에 산재된 불화(佛畵)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불모(佛母) 석정스님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스님이 지난 90년부터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해 온 불화들이 「한국의 불화」로 편찬된다.

5년간의 답사끝에 율해 선보일 불화집 「한국의 불화」는 우선 직지사 본말사편과 통도사 본말사편이 일차적으로 묶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정, 범하스님은 이미 직지사 본말사편의 해당 자료들을 불지사(대표·김형균)로 넘겼으며 현재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지사 본말사편에 이어 바로 통도사 본말사의 불화들도 도록으로 출간되는데 87년에 간행된 불화집을 보완해 나오게 된다. 또 해인사, 송광사 본말사에 대한 자료조사도 금년내로 마감해 바로 간행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불화집은 25개 본사와 말사들에 흩어져 있는 불화들을 모두 싣고 중요한 불화는 부분도를 상세히 담게 된다. 따라서 1개 본말사당 타블로이드판형 3백페이지 분량 2~3권의 불화집이 나오게 되며 25개 본말사에 대한 전질이 완간될 경우 50~60권 분량의 대형 불화집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불화」는 칼라화보로 불화들을 담고 화기(畵記)를 해설한 자세한 해설이 첨가되며 각권의 말미에는 관련 논문도 수록된다. 논문은 동국대 장충식교수등이 준비하고 있다.

"우선 삼보사찰과 이미 준비작업이 끝난 직지사편을 금년내로 출간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인력과 시간 재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석정스님과 범하스님의 원력으로 10년 이상을 계획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맡은 김형균씨는 금년에 2~3개 본말사의 불화를 1차적으로 펴내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불화」는 불화를 후불탱, 괘불, 각불탱, 천불탱등 종류별로 나누고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입장에서 제작연대나 조성자등에 대한 재확인 작업도 거쳐 편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불화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 나온 단편적인 불화집에 비해 '한국의 불화'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총괄의 의미가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외의 중요한 성보 발굴, 미술사적 가치 재정립, 관련 학자, 금어(金魚 : 불화를 그리는 사람)들 작업의 모본, 보호에 대한 경각심 등의 특징과 효과를 갖게 된다. 또 이 작업이 끝나면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한국불화의 〈화기집(畵記集)〉도 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 다니며 불화를 판독하고 정리한 석정스님은 "귀중한 성보인 불화의 훼손이 날로 심해지고 도난의 우려마저 높아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범하스님은 "석정 큰스님의 높은 뜻을 따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자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감로탱의 세계」 출간

### 도서출판 예경 4월에

한편 전국의 감로탱화를 집적한 「감로탱의 세계」도 올 4월경에 나온다.

도서출판 예경이 펴낼 이 책은 조선시대 감로탱의 전체도와 부분도 화기는 물론 「감로탱의 도상과 신앙의례」 「감로탱의 양식변천과 도상해석」등 논문도 함께 실린다. 분량은 3백~3백50 페이지 가량이며 수록되는 감로탱은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를 시대별로 구분해 도판 해설과 함께 싣는다. 또 도상분석과 종합적 성격도 일목요연하게 조망해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교육·포교원 개원

## 불교의 사회적 역할·신행혁신 다짐

조계종 별원으로 신설·격상된 교육원(원장 원산스님)과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의 개원식 및 현판식이 각각 지난 13일과 20일에 성료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성정스님,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 등 종단과 교육관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교육원 개원식은 경과보고 개원인사 법어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인사에서 교육원장 원산스님은 "불교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로 사회의 향도자 역할을 다 하는데 교육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역시 총무원 청사 1층에서 포교원장 취임법회 및 개원식이 봉행됐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취임사에서 "포교원이 별원시대를 기점으로 새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포교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7면〉

### 위원장 종범스님 선출

### 교재편찬위원회

조계종 교육원 산하 교재편찬위원회는 지난 1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를 선출했다.

교재편찬위원회는 오는 3월 실시될 행자교육의 교재 「초발심 자경문」중 자경문 부분을 빼고 대신 보현행원품을 새로 교재로 추가하기로 했다.

### 제1차 포교 토론회 열어

### 연구·활동사례 발표

포교원이 별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다양한 포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종단 내외 포교 활동가들의 이론 연구와 포교 역량의 확대 심화를 위해 스님, 포교사, 신행단체 실무자, 연구자, 신도들이 포교와 관련한 제반과제를 활동사례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제1차 포교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오후3시 본사 다원 녹수청산에서 열린 첫 토론회서 박경준교수(동대 불교대)와 신희권 사무국장(자비의 전화)이 「불교의 경제관에 대하여」 「불교 시민운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를 각각 발표했다.



◇지난 13일 거행된 조계종 교육원 현판식.

## 송석구·조희영 교수

## 동국대 총장후보로 추천

동국대 제13대 총장후보로 송석구, 조희영교수가 선출됐다.

동국대 교수회와 직원비상대책위는 지난 15일 각각 총장후보 추천선거를 실시, 철학과 송석구교수(교수회 2백35표, 직원회 1백17표) 와 경영학과 조희영교수(교수회 1백93표, 직원회 1백30표)를 이사회에 총장후보로 추천했다.

재단법인 동국이사회는 이달말 이사회를 개최 제13대 총장을 확정 발표한다.

## 만암스님 38주기 법회

전남 백양사(주지 지선)는 지난 15일 만암스님 열반 38주년을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서옹스님(백양사 조실)을 비롯 문중스님과 재가신도등 2백여명이 동참, 만암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 6월까지 무료검진

## 동국대 인천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인천 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부터 5시까지 인천 남구 연수 2동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동국대 인천 한방병원은 종합병원수준에서는 최초로 동인천 길병원과 양 한방 협진체제를 구축, 인천지역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인천한방병원의 김영인 과장은 "오는 6월까지 인천시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 한달에 2번 무료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6월이후에는 노인정, 복지관등의 특정지역을 인천시로 부터 배정받아 정기검진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동국대 인천한방병원은 스님에게는 30% 불자에게는 20%의 진료비 할인혜택으로 많은 불자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 자비의 전화 정기총회

## 새해 예산 사업심의

24시간 전문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자비의 전화 강의실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총회에는 자비의 전화 상담원 전원이 참석해 94년도 업무 및 결산보고, 9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신입 임원진 선정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 대불련 총동문회

## 전국 대표자 법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명호근)는 2월11일 오후 6시 대전 자광사에서 각 지역 동문 상견례를 겸한 전국대표자 법회를 개최한다. 총동문회는 이날 법회에서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11일 등문회 산하에 설치한 학술원의 발표회와 총동문회를 법인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회의도 갖는다.

# '생명운동' 단체 통합추진

## 생명공양실천본부등 4개단체, 효율적 운영위해

생명공양실천본부, 간병인협회등 생명운동을 벌이는 교계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명운동을 벌일 전망이다.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는 지난 16일 개최된 이사 및 상임운영위원 확대회의에서 교계 생명운동단체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할 것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 갔다.

법인 통합을 전개하게 될 생명운동단체들은 생명공양실천본부를 비롯 간병인협회(회장 정진) 감로심장회(회장 정일) 각막 및 장기기증본부 (이사장 박윤흔)등 4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통합에는 어려운 난관이 없지 않지만 이 난관들을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 생명운동 단체들의 통합은 전불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 단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함께 생명운동을 이끌어 가야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생명운동단체 통합추진을 비롯 △신행단체 및 군법사등 연 2회 교육 홍보 △각 청년회 거사회를 중심으로 헌혈운동 전개 △생명공양 가족 수련회 개최 (연 2회) 등 9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

### 인권위 서명운동 전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지난 17일 대각사 대웅전에서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정스님(보광사주지) 권오헌(민가협 공동의장) 윤희보씨(89년 출소)등 인권관계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서명발대식에서 진관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 비전향 장기수들인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의 고향방문은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는 길"이라며 "2천만 불교인들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고향방문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인권위는 기자회견 후 통일원과 적십자사를 방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혜문)는 지난 13일 네팔 여성노동자 성폭행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법 제정 △성폭행 사건 당사자 엄중처벌 △피해노동자에게 물질적 정신적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 남북해외불교지도자 합동 법회

## 3월 L·A서 … 평불협 미주본부 주최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회장 월주) 미주본부는 오는 3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제2회 남북 해외불교지도자 합동기원법회와 함께 '통일과 불교' 주제로 기념강연을 갖는다.

평불협은 또한 오는 4월 「북한불교연구소」 창립에 맞춰 '남북한의 불교발전을 위한 창립기념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91년 10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선사와 한국측 불교지도자가 최초로 만난 경험을 되살려 불교계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각종단 청년회장 이취임식

### 대불청·천태종·진각종등

새해들어 대불청을 비롯한 주요 종단 중앙청년회가 잇따라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지며 자체 체제정비를 통해 위상강화를 꾀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송월주스님 총재추대 및 제17·18대 중앙회장 이·취임법회를 열고 '이상번 시대'의 막을 올렸다.

이날 법요식은 월주스님에 대한 총재 추대패 증정과 이상번 회장의 취임사 및 각계의 격려사, 축사로 이어졌다.

이상번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불교중흥과 정법수호, 청풍진작으로 불청의 위상을 재정립해 21세기를 준비하는 대불청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천태종과 진각종 청년회도 신임 중앙회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 청년회 활동 강화에 나섰다.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2월5일 구인사에서 신임 이문수 중앙회장 취임법회를 갖고 '효'를 중심으로한 포교사업과 지역청년회 활성화를 목표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진각종도 구랍 17일 제19대 본부회장에 선출된 박희택회장의 취임법회를 2월 5일 대전에서 갖는다.

### 대불청 서울지구 대의원총회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김규범)는 오는 27일 오후 7시반 만해회관에서 제1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명직임원 인준, 9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올해 서울지구의 전반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아직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작품가치로만 보고 계십니까?

금강경(후면 연화도진품)10폭 병풍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전면 (흑색공단에 金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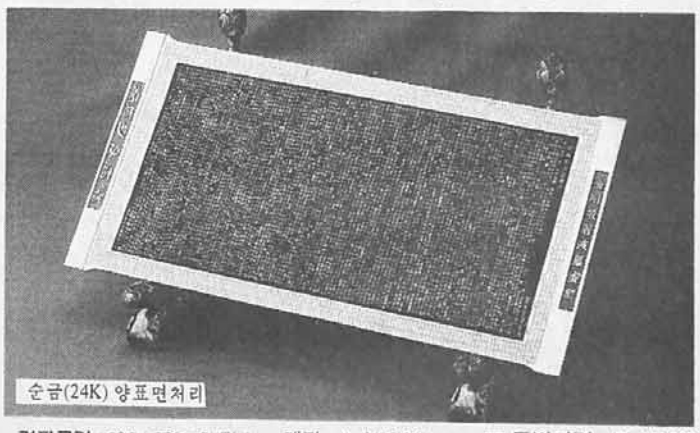
▲후면(진품연화도)

※ 참조 : 후면에 석가세존입대기(괄상록)을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 특 징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 규 격 · 높이 : 5자 8치 (175.8cm)
· 폭 : 14자 5치 (439.5cm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상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순금(24K) 양표면처리

· 경판규격 : 505×255×8 (㎜/m) · 재질 : 추석(99.9%) ■ 특별가격 ₩ 480,000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전통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담게 하였습니다.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금강석같은 금강경 병풍을 설명절 특별가격으로 한정수량을 보급합니다.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 믿음으로 찾은 행복

## 주부신행담 ①



## 남편은 자기만의 삶을 살며 이방인 대하듯…

싸늘한 밤기운이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옷 벗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몸을 비벼대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으르렁거리는 목어 소리를 삼켜버렸다. 채구 작은 법당은 어둠으로 뒤덮여 을씨년스런 모습이었다. 신발도 신는둥 마는둥 정신없이 뛰쳐 나온 내모습도 서서히 어둠에 묻히기 시작했다.

10여년전 남편은 믿음직한 모습에 건실한 직장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굳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되어 남편은 영화속의 연인처럼 서울로 훌쩍 떠나가 버렸다. 느닷없이 미용기술을 배운다며 아내와 자식, 처가식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자신만의 길을 택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누구도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나는 1년후 데리러 온다는 그의 마지막 말을 위안 삼아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친정에서는 이혼하라며 성화가 대단했다. 아버지는 애초에 반대했던 결혼을 하더니 그렇게 됐다며 당신의 관단이 옳았음을 과시하려는듯 나를 다그치셨다.

그러나 정작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었다. 당장 아이와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듯이 나도 이내 내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존재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야채장사, 생선장사 등 온갖 고생을 하며 남편의 약속을 믿고 생활을 이어갔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그런데 남편은 1년후 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잊기라도 한듯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내 인내도 한계에 부딪혔음인지 도저히 못살겠다는 생각이 온몸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엔 고향 김제를 등지고 서울로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찾는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남편은 서울 명동에서 자그마한 미용실을 꾸려가고 있었다. 무엇엔가 한번 매달리면 빠져드는 남편의 고집이 비록 작지만 이정도로 미용실을 운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또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매일같이 하는 미용실 청소만이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런 나에 대해 남편은 낯선 이방인을 대하듯 무관심하기만 했다. 남편에 대한 실망도 그렇지만 청소로 소일하는 내 모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절박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에 대한 가냘픈 절규에 불과했다.

한동안을 곰곰 생각한 끝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 미용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나 미용기술이 뿌리뽑힌 내 자아를 치료할 수는 없었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는 자성이 온종일 환영처럼 뒤따랐고,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동네어귀의 작은 암자를 찾게 되었다.

이것이 불교에 대해 무지했던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과 만나게 된 동기였다. 그러나 내 초발심은 생각보다 진지했고 끈질겼다. 틈나는 대로 암자를 찾는 것은 물론이었고 집에서도 경전을 모셔놓고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내가 왜 절을 찾게 되었는지 내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고시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외삼촌집에서 자랐고 대구나 이전까지 불교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던 나였기에 더더욱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뒷날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건 인연이었다. 그것도 아주 두꺼운 밧줄로 이어놓은 무진겁래의 필연(宿緣) 이었다.

얼마동안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법문 테이프를 듣는 내 모습에 대해 남편은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만 몰두할뿐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남편은 '남편의 행동을 제찍심아 더욱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겠다'던 내 인내에 한계를 느끼게 해준 참지못할 모욕을 안겨줬다.

"다 집어치워!" 지금까지 나를 무시해오던 남편이 별다른 말도 없이 금강경이며 천수경이며 내가 아끼는 불경들을 방바닥으로 팽겨쳤다. 나즈막이 틀리던 스님 법문 테이프도 목소리를 갈후었고 염주알도 제 짝을 찾느라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허탈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향했던 나의 서원이 오히려 초라했다. 법당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려니 지난 시절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뿌리뽑힌 내 자아를 미용기술이 치료 할 수는 없었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는 자성이 온종일 환영처럼 뒤따랐고,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동네어귀의 작은 암자를 찾게 되었다. 내 초발심은 진지했고 끈질겼다.***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가 쳐놓은 울타리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며 내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어차피 참아온 세월, 이것쯤 못참겠는가' 또다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았다. 한 길을 가야겠다는 믿음이 용솟음쳤다. '그래! 내게 또 하나의 일이 주어진 셈이다. 남편도 부처님 법을 알 수 있게 해주자.'

이화자(서울 종로구 홍지동)

## 이리후 건강칼럼 < 12 > 마 음 건망증



### 뇌손상·심리적 충격이 주원인

지난해의 검작 해외토픽을 발표한 A.P.통신의 여러토픽 가운데 아기를 가게에 두고 나온 한 도둑의 이야기가 백미를 이룬다. 내용인즉 이렇다. 네덜란드의 헴젤로라는 마을에서 한 남자가 아기에게 채울 기저귀를 훔치러 슈퍼마켓트에 들어갔다가 기저귀를 슬쩍 들고 나오는데에는 성공했으나 정작 아기는 유모차에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들렸다는 이야기다. 건망증 치고는 대단한 건망증이다. 요즈음 들어 주변이 되면서 자신의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실감은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린게 아닌가 하고 내심 불안해 하는데 중년들의 모임에선 많건 적건 이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다.

우선 기억력의 상실은 두가지의 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는 뇌의 기질적인 손상이 있으면 일어난다. 뇌가 기질적으로 상하자면 외상에 의해 상처를 받아도 일어난다. 요즈음 흔한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등으로 뇌를 다치게 되면 건망증이 일어날 수 있다. 성인병도 원인이 된다. 가령 고혈압으로 인한 뇌동맥경화증이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건망증은 따르게 마련이다.

물째로는 뇌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충격에 의하여 건망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마음의 충격은 객관적으로 크고 작고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충격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과 그 개인이 부여한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건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기질적인 건망증은 뇌의 손상 정도에 비례하여 기억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다르다.

이 두 기억상실을 구분하자면 다음 몇가지를 염두에 두면 된다. 기질적인 기억장애는 서서히 진행된다. 그리고 원인되는 신체적인 질병이 반드시 있다. 주로 자극을 받은 내용을 등록하고 이를 보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본 사람도 기억을 보유하지 못하니 누구시더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해 마음의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심리적인 사건이 선행한다. 견디기 힘든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기억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무의식적인 도피로 일어난다. 계기가 있어 회복되려면 급작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기질적인 것은 회복이 안되거나 된다 해도 아주 서서히 이루어진다.

##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⑥

'There are six perils of associating with evil friends: any gambler, any libertine, any tippler, any cheat, any swindler, any man of violence becomes his friend and companion.'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여섯가지 위험이 있다. 도박꾼, 난봉꾼, 술고래, 사기꾼, 어떤 협잡꾼, 폭력배등이 그의 친구나 동료가 된다.

'There are six perils in idleness: A man says, it is too cold, and does no work. He says, I am too hungry, and does no work... too full, and does no work. And while all that he should do remains undone, he makes no money, and such wealth as he has dwindles away.'

게으름에는 여섯가지 위험이 있다. 즉 그는 너무 춥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않는다. 그는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너무 배부르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해야할 모든 일이 완성돼인 한 그는 돈을 벌지 못하고 그가 지녔던 부는 차츰 줄어든다.

'Four persons should be reckoned as a foe in the likeness of friends: the rapacious person; the man who pays lip-service only to a friend; the flatterer; the wastrel.'

네 종류의 사람이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즉 탐욕스런 이, 친구에게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이, 아첨꾼, 부랑아.

*libertine: 난봉꾼, 방탕한 사람.
*tippler: 술을 상습적으로 마시는 사람, 술고래.
*swindler: 사기꾼, 협잡꾼.
*wastrel: 방탕자, 부랑아.

〈박미영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 삼성전관을 아시면 세계 1위 기업을 알게 됩니다.

BVQI 삼성전관 LCD업계 세계최초, 국제환경규격 BS7750획득!
삼성전관은 제품설계에서 폐기물관리에 이르는 모든 생산과정에서 무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여, 영국의 환경표준인증인 BS7750을 획득, 환경관리모범업체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 경쟁시대 —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치열한 경제전쟁속에서 선두에 우뚝 선
세계 일류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컬러 브라운관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전관!
어려운 기술환경속에서도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삼성전관의
기술개발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최초 바이오브라운관과
와이드 TV용 초평면 브라운관 개발, 차세대
영상기기의 주역이 될 HD TV브라운관 개발 등으로
세계 일류기업들과 영상기술을 겨루고 있는 삼성전관 —
말레이지아, 독일 등 해외공장의 성공적 운영과
멕시코공장 진출로 세계화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로 이룩한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기업,
세계속의 초일류기업 —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 브라운관 사업


• LCD사업


• 특수관 사업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 —
SAMSUNG
삼성전관